

삼국시대 신라기와의 연구 (三國時代 新羅기와의 研究)

- 황룡사지(皇龍寺址) 출토(出土) 신라(新羅)기와를 中心으로 -

申 昌 秀

<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士>

I. 머리말	IV. 三國時代 新羅기와의 編年
II. 皇龍寺址 出土 新羅기와의 形式分類	1. 第Ⅰ期
III. 皇龍寺址 廢瓦무지의 三國時代 기와 출토양상	2. 第Ⅱ期
1. 黃龍寺址 發掘調査 概要	3. 第Ⅲ期
2. 廢瓦무지의 性格	4. 第Ⅳ期
3. 廢瓦무지別 신라기와의 출토양상	5. 第Ⅴ期
4. 廢瓦무지 출토 신라기와의 分期	V. 맺음말

I. 머리말

기와는 목조건축물의 중요한 건축부재로 그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그 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신라(新羅)에 있어서 이러한 기와제작 기술이 언제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삼국(三國)을 통해 볼 때 지리적인 영향과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는 신라보다 일찍이 중국(中國)의 영향을 받아 조와기술(造瓦技術)이 발달되었고 신라는 이러한 고구려와 백제의 기와제작 기술을 받아 들이기 시작하면서 초기의 목조건축물에 기와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와기술(造瓦技術)의 유입은 6세기에 들어서면서 불교(佛敎)가 공인(公認)(A.D.528年)되고 곧이어 흥륜사(興輪寺)(A.D.544年), 황룡사(皇龍寺)(A.D.553年) 등 대규모의 가람(伽藍)들이 조영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며 따라서 늦어도 6세기 중엽경에는 활발한 기와제작이 본격화되어 갔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중국(中國)의 한(漢)을 비롯하여 남북조(南北朝)·수(隋)·당(唐)으로부터 조와(造瓦)기술을 받아들여 각기 독자적인 조와기술과 기와의 무늬장식이 발달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기와에는 초기부터 이러한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중국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기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관심있는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특히 근년에 들어서는 경주지역(慶州地域)의 유적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압지(雁鴨池)¹⁾, 황룡사지(皇龍寺址)²⁾ 등 대규모의 신라시대 건물지유적들이 발굴 조사되고, 이들 유적지에서 많은 양의 신라기와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됨에 따라 이러한 신라기와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해져서 종래의 연구업적들을 바탕으로 신라기와를 주제로 다룬 관계 논문들이 여러편 발표되기에 이르렀다³⁾. 물론 그동안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해 신라기와의 편年(編年)이나 기와무늬의 변천과정 등이 어느정도 밝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자료로 다루어진 대부분의 기와들은 유적지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수습된 것이거나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기와라 할지라도 실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명한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한 상태였고, 또 유적지의 존속기간이 어느 한시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라기와의 전체적인 편년에 작용할 수 있는 역할도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본고는 불교전래 이후에 건립된 신라 초기가람 중의 하나인 황룡사지(皇龍寺址)에서 출토된 신라기와를 중심으로 삼국시대(三國時代) 신라기와의 편年을 시도해 본 것이다. 물론 황룡사라는 하나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기와만을 가지고 신라기와 전체를 살펴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황룡사지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수 많은 기와들 가운데도 분명하게 실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황룡사는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삼국시대에 창건된 신라 최대의 가람(伽藍)으로 그동안 8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해 여기에서 출토된 기와들은 그 종류나 수량에 있어서 다른 유적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다양한 것으로 창건 당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걸쳐 사용되었던 기와의 양상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기록을 통해 건립연대를 알 수 있는 몇몇 초기 건물지의 기단내(基壇內)에서 출토된 기와들과 발굴조사 과정에서 사지(寺址)의 당시 생활면(生活面)인 구지표(舊地表)아래 곳곳에서 발견된 폐와(廢瓦)무지 출토 신라기와들은 그 실연대를 비교적 가깝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로 사지(寺址)의 생활면 위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된 기와들 보다는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신라기와의 편年설정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들과 함께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신라기와를 형식별로 분류하고 여기에 폐와(廢瓦)무지에서 출토된 신라기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삼국시대(三國時代) 신라기와의 편年을 설정(設定)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문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으나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폐와무지 출토 신

1) 문화재관리국,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1978
 2)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룡사 발굴조사보고서 I], 1984
 3) 현재까지 간행된 신라기와에 관한 연구논문과 저서로는
 김동현 외, [신라의 기와], 한국건축사대계 V, 건축과 문양(상), 동산문화사, 1976
 김성구, 「안압지 출토 고식와당의 형식적 고찰」, [미술자료]29호, 국립중앙 박물관, 1981
 —, 「통일신라시대의 와전연구」, [고고미술]162·163, 한국미술사학회, 1984
 —, 「통일신라시대 서조문원와당 소고」, [윤무병박사 회갑기념논총], 윤무병박사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84.
 김화영, 「삼국시대 연화문연구」, [역사학보]34집, 역사학회, 1967
 —, 「통일신라시대 연화문연구」, [이대사원]7집, 이화여자대학교, 1968
 박홍국, 「삼국말~통일초기 신라와전에 대한 일고찰」, 동국대학교, 1986
 윤근일, 「통일신라시대 와당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78
 濱田耕作, 「新羅古瓦の研究」, 경도제국대학 문학부 고고학보고서 13冊, 경도제국대학, 1934, 등이 있다.

라기와들이 삼국시대에서부터 통일초기(統一初期)까지의 연대폭을 보이고 있어 본고에서는 삼국시대 신라기와를 주로 다루되 통일기 양식으로의 전환기에 속하는 통일초기의 기와도 함께 포함해서 다루고자 한다.

끝으로 필자의 이러한 단편적인 편년설정이 전체 신라기와의 편년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시도가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의 우리나라 기와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II. 황룡사지(皇龍寺址)출토 신라기와의 형식분류(形式分類)

황룡사지 발굴조사를 통하여 수습된 각종 유물은 모두 4만여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각종 무늬가 새겨진 장식기와들로 3만여점이 넘는 많은 양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황룡사가 창건 당시부터 폐사(廢寺)되기 까지 약 7세기라는 오랜 기간동안 존속되었고 가람(伽藍)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건물들이 기와집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⁴⁾.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기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암·수막새들이었고, 이외에 연목와(椽木瓦), 부연와(浮椽瓦), 귀면와(鬼面瓦), 사래기와, 치미(鷓尾) 등 특수용도의 장식기와들도 상당수가 출토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기와 중 특수용도의 장식기와는 황룡사지 폐와무지에서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신라기와들과 함께 출토되고 있는 사래기와와 치미만을 다루기로 하며 암·수기와에 있어서도 황룡사지 전역에 걸쳐 출토된 기와 전부를 다루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또한 출토된 기와들 가운데도 출토 층위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폐와무지에서 삼국시대 막새기와들과 함께 일괄로 출토된 기와만을 선별해서 취급하고자 한다.

본장에서는 먼저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신라기와를 종류별로 나누고 이들을 기와의 형태와 장식된 무늬의 특징에 따라 형식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수막새

1) 단엽연화문 A형식(形式)(도(圖)1, 2, 3, 4, 5, 6)

윗부분이 뾰족하고 아리부분이 둥근 형태의 비교적 작은 연잎으로 무늬가 구성된 형식이다. 모두 폭이 좁은 민무늬의 주연을 높게 만들었다. 연잎의 수와 자방의 형태, 사이잎의 유무에 따라 6형식(形式)으로 구분된다.

圖1의 A₁ 형식은 중건가람 강당지 동북편에서 발견된 1호 폐와무지에서만 1점이 출토되었는데 파편으로 수습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8엽으로 보이며 높게 돌출된 삼각형에 가까운 사이잎과 연잎 좌우에 음각선을 그어 전체적으로 연꽃봉우리가 겹쳐진 것 같은 모습이다. 이러한 무늬의 수막새는 황룡사지에서 처음으로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

A₂ 형식(圖2)은 중건가람 동금당지의 창건건물 기단 내부에서 출토된 것으로 8엽의 연잎과 사이잎이 장식되고 있는데 사이잎이 강조되면서 서로 연결되어 연잎이 작게 표현되었다. 한줄의 굵은 원권(圓圈)을 둘러 만든 평면형의 자방에 5개의 연자가 배열되었다.

A₃ 형식(圖3)과 A₄ 형식(圖4)은 모두 같은 모습을 한 8엽의 연잎으로 구성된 형식이나 A₄

4) 조유진, 「신라 황룡사가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1987

형식은 사이잎이 생략되면서 연잎이 비교적 작게 표현되고 있어 차이를 보이며 모두 용기된 좁은 자방에 5개씩의 연자를 배열하고 있다. A₃ 형식의 수막새는 모두 21점의 비교적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으나 A₄ 형식은 3점에 불과한 소량이 출토되었다.

A₅형식(圖5)은 7엽의 연잎과 삼각형에 가까운 높게 돌출된 사이잎이 장식된 것으로 매우 정제된 모습을 보이며 연잎의 끝부분과 주연사이에 비교적 넓은 간격을 이루고 있다. 역시 다른 형식의 수막새와 같이 용기된 좁은 자방에 5개의 굵은 연자가 배치되었다. A₃ 형식과 같이 21점의 비교적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A₆형식(圖6)의 수막새도 A₅형식과 같이 7엽으로 구성된 것이나 막새의 크기가 작고 사이잎과 연자의 배치가 생략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모두 11점이 출토되었다.

2) 단엽연화문 B형식(形式)(圖7, 8, 9, 10)

연잎이 폭에 비해 길이가 길고 윗부분이 아래부분보다 넓어지며 연잎 끝에 반전이 없는 8엽의 연잎이 장식된 형식이다. 연잎의 중앙에 굵은 세로줄이 표현되거나, 연잎이 중앙으로 가면서 급격하게 높아져 연잎의 중앙에 능선이 있고 가는 원권을 둘러 만든 평면형 자방, 또는 낮게 용기된 좁은 자방을 만들었다. 모두 4가지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연잎과 자방의 형태, 연자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B₁ 형식(圖7)과 B₂ 형식(圖8)은 연잎이 중앙에서 양쪽으로 급격한 경사를 이루며 능선(稜線)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한줄의 가는 원권(圓圈)을 둘러 만든 평면형의 좁은 자방에 6, 7개의 작은 연자를 각각 배열하고 있다. 주연은 모두 좁고 높게 만들었으며 무늬장식이 없다. B₁ 형식의 수막새는 폐와무지에서 2점, 전체적으로는 3점이 출토되었으며, B₂ 형식은 모두 4점이 출토되었다.

B₃ 형식(圖9)은 연잎의 끝이 약간 뾰족하고 연잎 중앙에 가는 세로줄이 표현되었다. 평면형의 자방에 9개의 연자가 배치되고 주연은 좁고 높은 편이다. 폐와무지에서는 1점이 출토되었으나 전체적으로 22점의 비교적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B₄ 형식(圖10)의 수막새는 크기가 작은 소형으로 연잎 중앙에 굵은 세로줄이 표현되고 연잎끝에 희미하게 반전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낮게 용기된 자방에 9개의 굵은 연자가 배치되었다. 폐와무지에서는 2점이 출토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모두 47점의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3) 단엽연화문 C형식(形式)(圖11, 12)

모두 8엽의 연잎으로 구성된 형식으로 연잎이 비교적 작고 끝이 높고 날카롭게 반전을 이루며 연잎 중앙에 능선(稜線)이 나타나고 있다. 연잎의 사이에는 역시 끝이 높고 날카롭게 반전된 사이잎과 구획선이 배치되고 있다. 2형식 모두 유사한 모습이나 C₁ 형식(圖11)의 수막새는 중앙에 높게 돌출된 넓은 자방을 두고 5개의 연자를 배열하였고 C₂ 형식(圖12)은 C₁ 형식에 비해 좁게 만든 자방의 외연에 가는 윤곽선을 둘러 7개의 연자를 배열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주연은 모두 접은 폭으로 높게 만들었으며 주연에 무늬장식이 없다. 출토수량은 폐와무지에서 3, 4점 전체적으로도 10여점 정도의 소량이 출토되었다.

4) 단엽연화문 D형식(形式)(圖13, 14, 15, 16)

연잎이 크고 볼륨이 연잎 중앙에 강조되어 후육(厚肉)한 모습을 보이는 8엽의 연잎으로 구성된 형식이다. 연잎의 끝이 날카롭고 높게 반전을 이루며 연잎중앙에 능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높게 돌출된 넓은 자방의 외연에 굵은 윤곽선을 두르고 있다. 모두 민무늬의 폭이 좁은 주연을 높게 만들었다. D₁ 형식(圖13)은 연잎의 길이가 짧아 원형에 가깝게 보이며 자방에 5개의 굵은 연자를 배열하였고 D₂ 형식(圖14)과 D₃ 형식(圖15)은 7개씩의 높게 돌출된 굵은 연자를 배열하였는데 매우 정제된 모습을 보인다. D₄ 형식(圖16)의 수막새는 연잎

의 볼륨이 약해져 거의 평평한 모습이며 연잎끝의 반전도 둔해졌다. 이 형식의 수막새 중 D₂, D₃ 형식은 각 폐와무지에서 많은 출토량을 보이며 전체적으로도 289점의 양이 출토되었고 나머지 D₁, D₄ 형식의 수막새는 폐와무지에서 1, 2점 정도 출토되었으며 전체적으로도 10여점에 불과한 소량씩이 출토되었다.

5) 단엽연화문 E형식(形式)(圖17, 18, 19)

연잎이 전체적으로 볼륨이 약해지고 윗쪽으로 차차 두꺼워지면서 끝부분에서 약하게 반전을 이루고 있는 형식이다. 연잎 중앙에 비교적 굵은 세로줄이 표현되고 끝이 높게 돌출된 사이잎과 구획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방이 작아졌고 낮게 돌출된 자방에 5~7개의 연자를 각각 배열하였다. 모두 좁고 높은 민무늬의 주연을 두었는데 모두 주연의 아래부분이 경사를 이루고 있다. E₃ 형식(圖19)의 연잎은 D₄ 형식과 같은 모습이나 6엽으로 구성되어 있다. E₁ 형식(圖17)과 E₃ 형식은 폐와무지에서 각각 2점씩, 전체적으로는 각각 20점 내외의 출토량을 보이며 E₂ 형식(圖18)의 수막새는 각 폐와무지에서 모두 16점이 출토되었고 전체적으로는 30점이 출토되었다.

6) 단엽연화문 F형식(形式)(圖20, 21)

연잎의 길이가 길고 윗쪽으로 가면서 차차 폭이 넓어진 8엽의 연잎이 장식된 형식이다. 연잎의 끝은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연잎 중앙에는 가는 세로줄이 나타나고 있다. 자방은 크기가 아주 작아지고 있는데 F₁ 형식(圖20)은 한줄의 원권을 두르고 그 안에 다시 낮게 돌출시킨 좁은 자방을 두었으며 F₂ 형식(圖21)은 작은 원권만을 둘러 평면형의 자방을 만들고 있어 차이를 보이며 모두 5개씩의 굵은 연자를 배열하였다. 모두 좁고 높은 민무늬의 주연을 두었다. F₁ 형식의 수막새는 폐와무지에서 모두 3점이 출토되었고 전체적으로는 6점의 소량이 출토되었으며 F₂ 형식은 전체적으로 7점이 출토되었다.

7) 단엽연화문 G형식(形式)(圖22, 23, 24)

길이가 짧고 끝부분이 넓은 6엽의 연잎이 장식된 형식이다. 연잎 끝부분에 볼륨이 강조되고 연잎중앙으로 능선이 나타나며 연잎의 끝에 반전이 없어지고 둥글게 처리되었다. 연잎의 사이에는 서로 연결된 사이잎과 구획선을 두었으며 G₁ 형식(圖22)과 G₂ 형식(圖23)은 낮게 돌출된 좁은 자방에 5개, 7개씩의 굵은 연자를 배열하였고, G₃ 형식(圖24)의 수막새는 F₁ 형식(圖20)과 마찬가지로 한줄의 가는 원권을 두르고 그안에 다시 돌출시킨 좁은 자방을 만들어 5개의 연자를 배치하였다. 모두 좁고 비교적 높은 주연을 만들었으며 연잎과 주연 사이의 간격이 넓다. 출토수량에 있어서는 G₁, G₂ 형식의 수막새가 폐와무지에서 모두 35점이 출토되었고 전체적으로는 370여점의 많은 양이 출토되었으며, G₃ 형식의 수막새는 전체적으로 2점에 불과하였다.

8) 단엽연화문 H형식(形式)(圖25)

G형식과 유사한 형식이나 자방의 크기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연잎의 길이가 짧아져 연잎이 원형에 가깝게 보인다. 연잎 가운데에 가는 세로줄이 뚜렷하며 주연사이의 간격이 G형식의 수막새보다 더 넓은 간격을 이루고 있다. 폐와무지에서는 출토량이 3점에 불과하나 전체적으로는 114점의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9) 단엽연화문 I형식(形式)(圖26)

연잎의 윗부분이 넓고 연잎끝이 둥글며 끝에 주문(珠文)의 반전이 있는 8엽의 연잎이 장식된 형식이다. 연잎의 끝부분에 볼륨이 강조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평한 느낌이며 연잎의 중앙에 세로줄이나 능선(稜線)의 흔적이 전혀 없다.

낮게 돌출된 비교적 넓은 자방에 7개의 작은 연자가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고 민무늬의 주

연은 폭이 좁은 편이다. 폐와무지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는 24점이 출토되었다.

10) 단엽연화문 J형식(形式)(圖27)

볼륨이 없이 평면화된 6엽의 연잎으로 구성된 형식이다. 연잎의 끝에 T자형의 반전이 나타나며 연잎 중앙에 十字형의 무늬가 장식되었다. 연잎의 사이에 구획선을 두고 한줄의 원권(圓圈)을 둘러 만든 넓은 평면형 자방에 5개의 연자를 배열하였다. 주연은 좁고 높은 편이며 무늬가 없다. 폐와무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23점이 출토되었다.

11) 단엽연화문 K형식(形式)(圖28)

약화된 8엽의 작은 연잎이 장식된 형식으로 연잎의 끝이 뾰족하며 연잎안에는 3줄씩의 잎맥이 새겨졌다. 끝이 뾰족한 연잎 모양의 구획선에 의해 양쪽으로 갈라진 사이잎은 작은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다. 비교적 높게 만든 민무늬의 넓은 주연을 두었는데 연잎과의 사이에 구슬무늬가 장식되고 있어 이례적(異例的)인 모습이다. 낮게 융기된 비교적 넓은 자방은 윗면이 약간 오목하며 8개의 굵은 연자가 배열되었다. 폐와무지에서 6점이 출토되었고 전체적으로는 모두 48점이 출토되었다.

12) 단엽연화문 L형식(形式)(圖29, 30)

길고 후육(厚肉)한 8엽의 연잎으로 구성된 형식이다. 볼륨이 연잎의 중앙에 강조되고 연잎의 외연(外緣)에서 낮은 단을 이루며 연잎의 끝이 경미하게 반전을 이루고 있다. 연잎 가운데 능선(稜線)이 비교적 높게 돌출되었고 높게 융기된 넓은 자방에 7개와 9개의 연자가 각각 배열되었다. 다른 형식의 수막새에 비해 막새면이 넓고 폭이 넓은 주연을 만들고 있는데 무늬장식은 없다. L₁ 형식(圖29)은 모두 298점이 출토되어 단엽형식의 수막새 중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는데 폐와무지에서도 모두 126점의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L₂ 형식(圖30)도 모두 112점이 출토되었으며 각 폐와무지에서 모두 37점이 출토되었다.

13) 단엽연화문 M형식(形式)(圖31, 32)

앞의 단엽연화문 L형식(形式)과 유사한 형식이나 사이잎이 확대되면서 연잎의 볼륨이 약해지고 연잎 둘레에 화륜권(花輪圈)이 장식되었다. 행엽형(杏葉形)의 사이잎 중앙에 꽃술모양의 구획선을 두었으며 낮고 넓은 주연을 두고 있는데 M₂ 형식(圖32)은 주연에 구슬무늬가 장식되었다. M₁ 형식(圖31)은 연잎 중앙에 능선(稜線)이 있고 낮게 돌출된 자방에 7개의 연자를 배열하였으며 M₂ 형식은 연잎의 능선이 생략되고 자방에 9개의 연자를 배열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각 폐와무지에서 36점이 출토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모두 91점이 출토되었다.

14) 단엽연화문 N형식(形式)(圖33)

연잎 중앙의 세로줄에 의해 연잎이 2분되면서 내곡(內曲)된 8엽으로 구성된 형식이다. 구획선이 없이 연잎의 윗부분과 같은 모양의 작은 사이잎을 두고 낮게 돌출된 자방에 7개의 연자를 배열하였는데 연자 주위에 작은 원권(圓圈)을 둘러 장식하였다. 폭이 넓고 낮은 주연에 굵은 구슬무늬가 장식되었다. 폐와무지에서는 1점만이 출토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100여 점의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15) 단엽연화문 O형식(形式)(圖34)

연잎의 끝이 갈라지면서 세로줄이 없이 내곡(內曲)된 8엽의 연잎으로 구성되었다. 낮게 돌출된 넓은 자방에 16개의 많은 연자가 배열되었으며 구슬무늬가 장식된 넓은 주연을 두고 있다. 폐와무지에서 모두 8점이 출토되었고 전체적으로는 16점이 출토되었다.

16) 단엽연화문 P형식(形式)(圖35)

앞의 D형식(形式)과 같은 모양의 연잎으로 구성된 형식이나 연잎 안에 인동(忍冬)무늬가 장식되었다. 연잎 사이에 구획선을 두고 넓은 자방에 모두 14개의 연자를 배열하였다. 구슬무늬가 장식된 주연은 낮고 비교적 좁은 편이다.

17) 복엽연화문 A형식(形式)(圖36, 37, 38)

연잎 중앙의 능선(稜線)에 의해 연잎이 2등분된 복엽의 연잎으로 구성된 형식이다. 6엽과 8엽의 2종류가 발견되고 있는데 6엽형식인 A₁ 형식(圖36)과 A₂ 형식(圖37)은 연잎의 끝이 둥글고 볼륨이 연잎 중앙에 강조되어 원형에 가까운 모습이다. 연잎 둘레에 끝이 높게 반전된 화륜권(花輪圈)이 장식되고, 역시 끝이 높게 반전을 이루는 사이잎과 구획선을 두었다. 모두 무늬장식이 없는 비교적 높은 주연이며 A₁ 형식은 높게 돌출된 자방 둘레에 구슬띠를 둘러 장식하였고 A₂ 형식은 한줄의 원권(圓圈)을 둘러 만든 평면형 자방에 각각 9개씩의 연자를 배열하였다. A₃ 형식(圖38)은 8엽이 장식된 것으로 소형이다. 출토수량은 A₁ 형식과 A₂ 형식이 각 폐와무지에서 84점이 출토되었고 전체적으로는 200점 이상의 많은 양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이 A₁ 형식이며, A₃ 형식은 모두 11점의 소량이 출토되었다.

18) 복엽연화문 B형식(形式)(圖39)

연잎 가운데의 세로줄에 의해 연잎이 2개로 분리된 복엽으로 구성된 형태이다. 연잎의 끝이 높게 반전을 이루고 있고, 역시 끝이 높게 돌출된 사이잎이 장식되고 있는데, 사이잎이 서로 연결되면서 주연과의 사이에 넓은 간격을 이루고 있다. 낮게 돌출된 넓은 자방에 9개의 연자를 정연하게 배열하고 자방의 외연에 가는 원권을 돌렸다. 민무늬의 주연은 높게 만들었다. 폐와무지에서는 1점만이 출토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모두 12점이 출토되었다.

19) 중엽연화문 A형식(形式)(圖40, 41, 42)

연잎의 끝이 갈라지면서 약하게 반전을 이루고 연잎이 내곡(內曲)된 8엽의 연잎을 바깥에 배치하고, 이와 엇갈리게 2개씩의 자엽(子葉)이 장식된 복엽을 안쪽에 배치한 형식이다. 바깥의 연잎 사이에는 Y형의 사이잎을 높게 돌출시켜 배치하고 짧은 구획선을 넣었다. 높게 돌출된 자방에는 원권(圓圈)을 둘러 3분하고 A₁ 형식(圖40)은 모두 23개, A₂ 형식(圖41)은 26개, A₃ 형식(圖42)은 18개의 연자를 각각 배열하였다. 폭이 좁고 낮은 주연에는 모두 구슬무늬가 장식되었는데 A₂ 형식과 A₃ 형식은 구슬무늬 둘레에 원권을 돌렸다. 이 형식의 수막새는 모두 998점이 출토되고 있어 황룡사에서 출토된 수막새 중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는데 반 이상이 A₁ 형식이며 폐와무지에서도 모두 290점이 출토되었다.

20) 중엽연화문 B형식(形式)(圖43, 44, 45)

앞의 A형식과 같은 모양의 연잎으로 구성된 형식이나 바깥쪽 연잎 안에 인동(忍冬)무늬가 장식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모두 비교적 좁고 낮게 만든 주연에 구슬무늬가 장식되어 있는데 B₁ 형식(圖43)과 B₃ 형식(圖45)은 구슬무늬 둘레에 2중으로 원권을 둘러 장식하였으며 작은 원권(圓圈)에 의해 3분된 자방에는 13~16개의 연자를 각각 배열하였다. B₁ 형식만 2점이 폐와무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전체적으로 B₁ 형식이 417점, B₂ 형식이 34점, B₃ 형식이 57점 출토되었다.

21) 중엽연화문 C형식(形式)(圖46)

2개씩의 자엽(子葉)이 장식된 복엽을 서로 엇갈리게 안팎으로 배치한 형식으로 각각 10엽씩을 배치하였다. 낮게 돌출된 넓은 자방의 외연(外緣)에 구슬띠를 둘러 장식하고 3열로 모두 16개의 연자를 배열하였다. 비교적 좁게 만든 주연에는 구슬무늬가 장식되었고 바깥 연잎과 주연 사이에 가는 원권을 둘러 주연부와 구분하였다. 폐와무지에서는 2점만이 출토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100여점의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22) 귀면문 A형식(形式)(圖49)

귀신(鬼神)의 형상을 원형(圓形)의 막새면에 맞게 특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여 의장화(意匠化)시킨 무늬가 장식된 형식이다. 귀면상(鬼面像)은 원래 방형(方形) 또는 제형(梯形)의 귀면와(鬼面瓦)에 주로 장식되는 무늬로 수막새에 장식된 예는 드문 형식인데 황룡사지의 폐와무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길게 찢겨진 앞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으며 좁은 주연을 높게 만들었는데 무늬장식은 없다. 폐와무지에서 모두 68점이 출토되었으며 전체적으로 245점이 출토되었다.

23) 귀면문 B형식(形式)(圖50)

앞의 귀면문 A형식과 유사한 모습의 귀면상이 장식된 것이나 귀면상을 작게 만들고 주연과의 사이에 14엽의 복엽연화문을 장식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역시 주연은 무늬장식이 높게 만들었다. A형식과 함께 폐와무지에서 14점이 출토되었으며 전체적으로 46점이 출토되었다.

2. 암막새

1) 당초문 A형식(形式)(圖51)

내림새면 중앙에 당초(唐草)줄기로 중심식(中心飾)을 만들고 이에 연결되어 좌우로 뻗어 나가는 과도모양의 당초줄기와 이에서 분기(分岐)되어 반진을 이루는 가지를 좌우대칭이 되도록 전개시켜 장식한 것으로 아래 위쪽에만 2줄씩의 가는 돌선(突線)을 넣어 주연을 만들고 그 안에 각각 작은 구슬무늬를 장식하였다. 대부분 폭이 좁고 길이가 매우 긴데 가장 긴 것은 44cm에 이르고 있다. 폐와무지에서는 모두 35점이 출토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468점이 출토되었다.

2) 당초문 B형식(形式)(圖52)

앞의 당초문 A형식과 같은 내용의 무늬로 구성된 것이나 내림새면 중앙의 무늬장식이 반대로 되어 있고 폭이 비교적 넓으며 A형식에 비해 두꺼운 암키와가 집합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A형식과 함께 모두 41점이 폐와무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52점이 출토되었다.

3. 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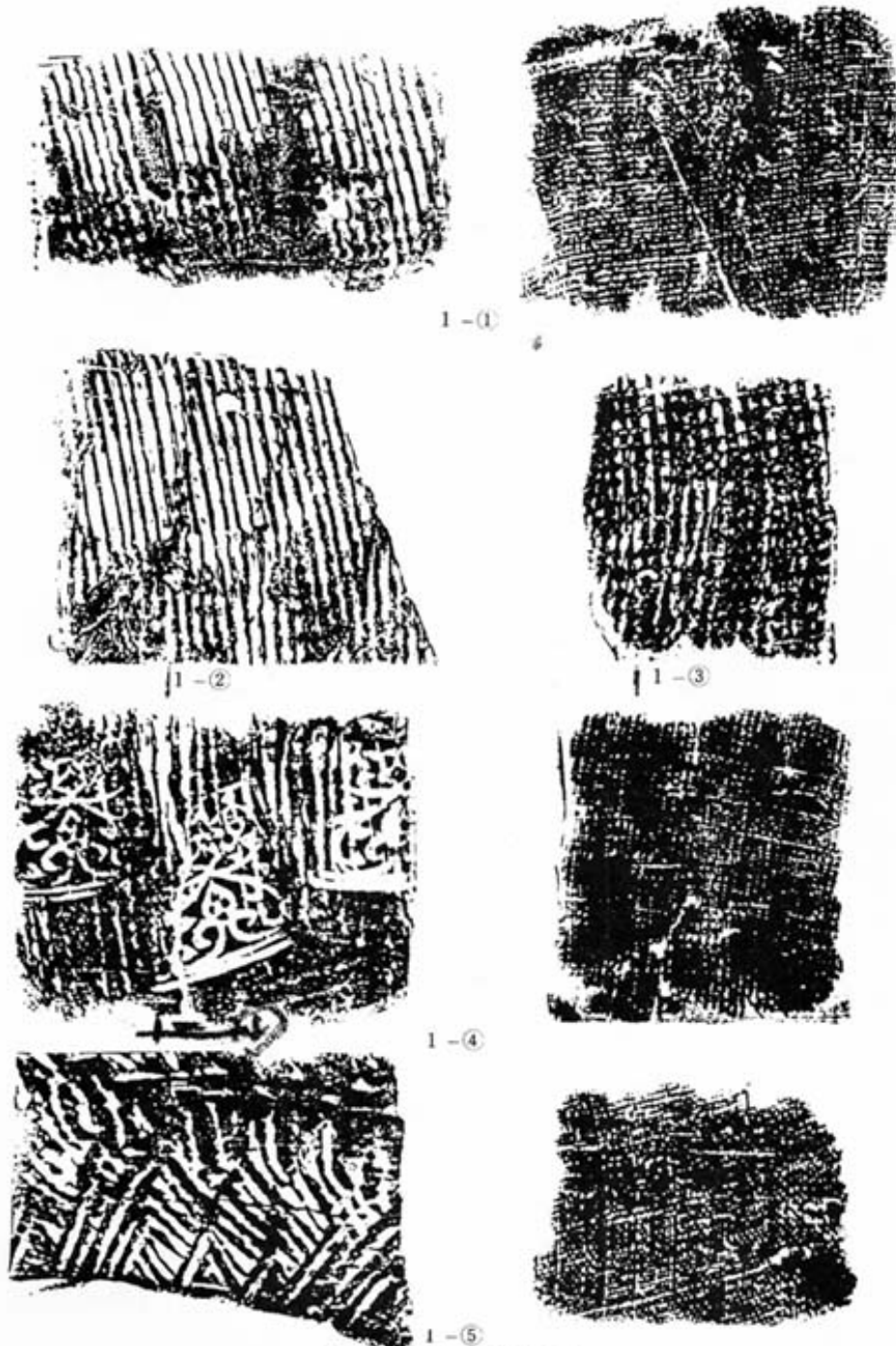
1) 수키와 A형식(形式)(圖54)

기와의 평면이 사다리꼴로 되어 있어 윗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은 형태인데 그 모양에 따라 토수기와⁵⁾로 불려지고 있는 수키와이다.

기와등에 줄무늬나 문살무늬가 시문되어 있는데 줄무늬가 대부분이며 모두 무늬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이 형식의 기와들은 모두 등무늬가 있는 것이었으며 민무늬의 기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줄무늬는 모두 세로줄무늬(삽도1-①)나 약간 비스듬히 찍힌 빗줄무늬(삽도1-②)이며, 문살무늬는 간격이 0.5cm 정도의 좁은 문살무늬로 되어 있었다(삽도1-③). 그리고 圖54에서 보이듯이 세로줄무늬에 꽃무늬가 장식된 것(삽도1-④)과 줄무늬의 고판(叩板)을 여러 방향에서 두드려 어골문(魚骨文)과 비슷한 무늬를 보이고 있는 것

5) 김동현, 앞의 책, 1976, P.343 참조

도 소량 출토되었다(삽도1-⑤). 그런데 이 삽도1-⑤에서 보이고 있는 무늬는 토수형의 수키와와 암키와에서만 발견될 뿐 이음부분에 미구가 달린 수키와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와의 안쪽에 나타나고 있는 포흔은 울이 굵고 거친 것과 가늘고 고운 것이 모두 발견되고 있으며, 기와의 양쪽 끝부분은 비교적 깨끗하게 마무리 하였다.



삽도 1 토수기와 등무늬와 포흔

기와의 크기는 대부분 과편으로 수습되어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으나 圖54의 기와를 보면 전체길이가 34cm였고 폭은 윗쪽이 16.5cm, 아랫쪽이 10cm이며 기와의 두께는 1.5cm정도로 비교적 얇은 편이었다.

제작수법은 모두 원통형으로 만들어 2分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기와의 분할면에 나타난 흔적으로 보면 이 형식의 기와는 모두 기와의 등쪽에서 안쪽으로 기와 두께의 반이상을 와도(瓦刀)를 대어 깊게 칼질한 후 분할하거나 (圖55), 전체를 와도(瓦刀)로 찢라 분할하는 방법(圖56)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형식의 기와들은 높은 화도(火度)에서 구워진 것으로 보이는 회흑색(灰黑色)의 훈와(燻瓦)⁶⁾와 붉은색이 도는 회백색(灰白色)의 연결기와가 함께 발견되고 있으며, 다음에 설명한 B형식(形式)의 미구기와⁷⁾에 비해 그 출토량이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겠으나,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수키와들이 과편으로 수습되어서 미구기와와의 구별이 힘든 상태여서 전체적인 수량을 알 수 없다.

2) 수키와 B형식(形式)(圖57)

황룡사지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수키와가 이 형식에 속하는데 기와의 크기와 등무늬, 제작수법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형태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하나 기와의 크기와 두께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며 특히 이음부분의 기와턱, 즉 언강의 높이와 미구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데, 대체로 언강의 높이는 1.5cm~2cm정도가 대부분이며 미구의 길이는 5.5cm~10cm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기와 안쪽의 미구와 수키와와의 접촉 부분에 각이 진것(圖58)과 각이 없이 낮은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것(圖59)으로 구분되며 수키와의 이음부분에 붙는 미구가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나 미구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수키와의 안쪽에 접합시킨 것(圖60)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언강이 따로 없고 수키와의 두께가 언강의 높이가 되고 있다.

이 형식의 수키와에 있어서는 분할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圖58과 같이 기와 안쪽의 미구와 수키와와의 접촉부분에 각이 진 수키와는 모두 기와 등쪽에서 안쪽으로 와도(瓦刀)를 대고 칼질을 하여 분할하였으며 (圖61), 圖59와 같이 각이 없이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는 수키와는 모두 기와의 안쪽에서 기와의 등쪽으로 칼질을 하여 분할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圖62). 칼질의 깊이는 대부분 기와두께의 반이상 또는 거의 전체를 깊게 잘랐다. 또한 圖60의 수키와와 같이 미구를 별도로 만들어 접합시킨 수키와는 예외없이 한쪽은 기와의 등쪽에서 안쪽으로 다른 한쪽은 반대로 기와의 안쪽에서 등쪽으로 와도(瓦刀)를 대고 기와두께의 반이상 또는 거의 전체를 칼질하여 분할하는 특이한 방법을 보이고 있다(圖63).

이 형식의 기와등에 나타나고 있는 무늬는 B형식과는 달리 민무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판(叩板)으로 두드린 후 물손질로 인해 세로줄무늬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 것(삽도2-①)이 많이 발견되며, 등무늬가 뚜렷한 기와들 중에는 가장 많은 것이 줄무늬로 세로줄무늬(삽도2-②)와 빗줄무늬(삽도2-③)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소량이지만 문살무늬도 발견되고 있는데 모두 간격이 좁은 문살무늬였다(삽도2-④).

6) 진흙을 빚어 말린 날기와 즉, 素地기와를 900~1000. C 정도로 불완전 연소시켜 기와표면에 松針 등을 태워서 그 그늘임에 의해 탄소피막이 입혀진 기와를 말한다.

장기인, 「개와」, [한국건축연구] 제4집, 1975, P215 참조

7) 김동현, 앞의 책, 1976, P. 343

장기인, 앞의 책, 1975, P.219

기와의 크기나 두께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가장 큰 것이 길이가 50cm, 폭이 20cm였다. 두께는 2cm내외의 것이 가장 많았고, 1cm정도의 얇은 것과 3cm정도의 두꺼운 것도 발견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와의 윗부분을 기와를 엮을때 이를 맞추기 위해 얇게 깎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圖60의 수키와와 같이 미구를 따로 만들어 집합시킨 기와 중에는 기와의 길이가 유난히 짧은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 수키와의 길이가 19cm, 미구의 길이가 6cm로 전체 길이가 25cm정도여서 특수용으로 제작된 수키와로 생각된다.

기와의 색조나 소성도에 있어서는 모두 일정하지 않았으며 일부 수키와의 등에는 네모 또는 원형의 못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소량이 발견되고 있다(圖64).

4. 암키와

암키와는 형태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으나 기와의 크기와 두께, 그리고 제작수법과 등무늬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토된 기와들이 대부분 파편이어서 전체적인 크기는 알 수 없으나, 크기를 알 수 있는 圖65의 기와를 보면 폭이 36cm, 길이가 40cm였으며, 두께는 대부분 1~2.5cm정도로 2cm안팎의 것이 가장 많다. 그런데 圖51의 암막새를 보면 내림새의 길이가 44cm에 이르고 있어 대형의 암키와도 제작되고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색조에 있어서는 회백색(灰白色), 회흑색(灰黑色), 붉은색 등 여러가지가 발견되고 있는데 대체로 태토가 곱고 치밀한 회백색(灰白色)계통의 기와들이 얇고 경질로 만들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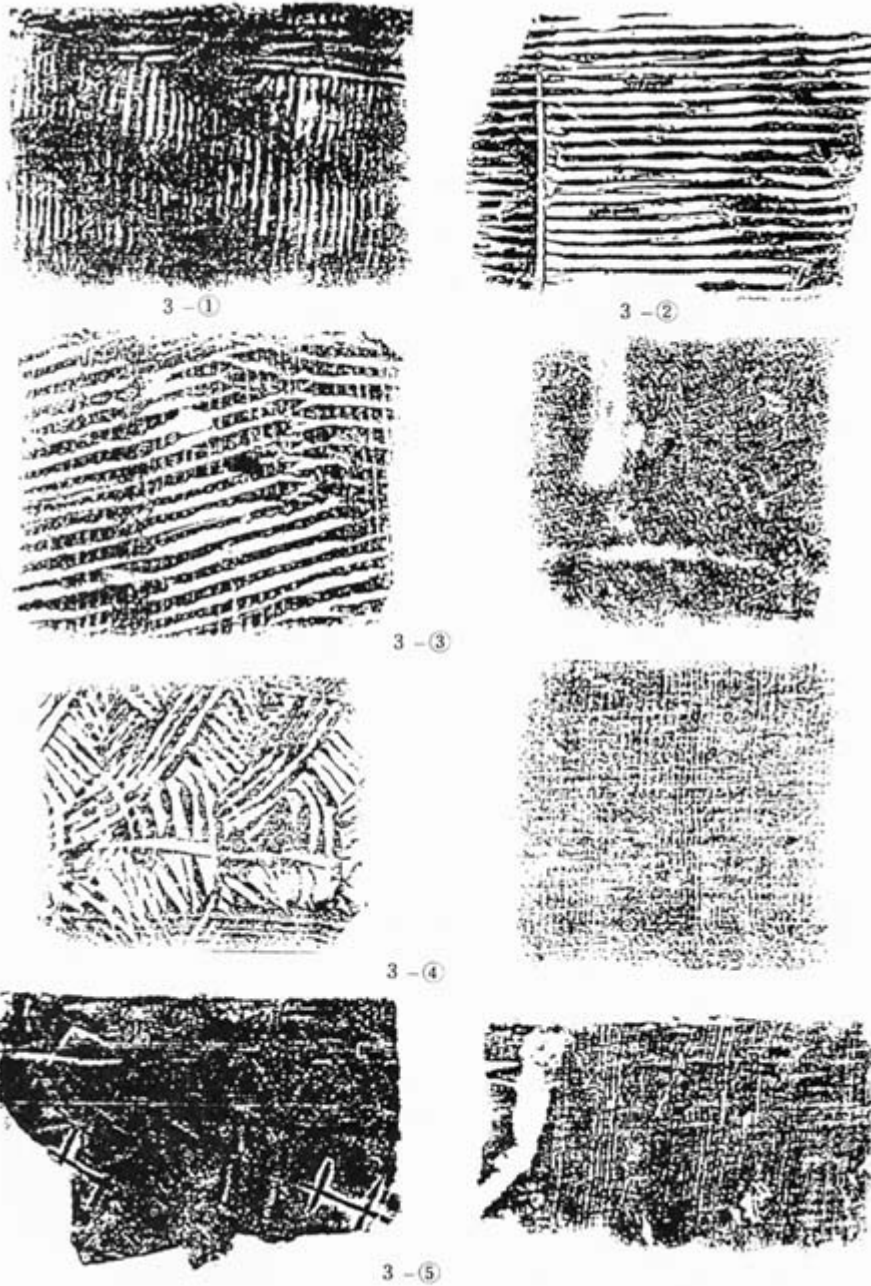
기와의 등에 나타나고 있는 무늬는 수키와 B형식과 마찬가지로 민무늬기와의 가장 많이 발견되며 물손질로 인해 세로줄무늬나 빗줄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는 것(삽도3-①)이 많았고 등문양으로는 줄무늬가 역시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줄무늬도 역시 수키와와 마찬가지로 세로줄무늬(삽도3-②)와 빗줄무늬(삽도3-③)가 대부분이며 줄무늬의 고판(叩板)을 여러 방향에서 겹쳐 두드려 어골문(魚骨文)과 비슷한 무늬를 보이는 것(삽도3-④)과 물손질로 인해 기와등에 띄엄 띄엄 일부만 남아 있는 넓은 간격의 문살무늬(삽도3-⑤)도 소량 발견되었다. 기와 안쪽의 포흔도 역시 수키와와 마찬가지로 올이 곱고 거친것과 가늘고 고운 것이 모두 발견되고 있다.



삽도 2 수키와 B형식의 등무늬

제작수법에 있어서는 역시 원통형으로 만들어 와도(瓦刀)로 칼질 한 후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기와의 크기나 형태로 보아 4分한 것으로 보인다. 분할방법에 있어서는 수키와와는 달리 모두 예외없이 기와의 안쪽에서 등쪽으로 칼질을 한 후 분할하였는데 분할면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기와두께의 1/3정도로 얇게 칼질한 것(圖66)이 가장 많고 기와 두께의 거의 전체를 잘라낸 것(圖67)과 분할 후 와도(瓦刀)로 2~3회 손질한 것(圖68)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외에 소량이지만 기와등에 명문(銘文)이 찍힌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 모두 「목평(木平)」의 명문이 세로로 인각(印刻)되어 있었으며 (삽도4), 사람의 얼굴모습과 뜻모를 기호들이 선각(線刻)된 것 (삽도5)도 소량이 출토되었다.



삽도 3 임키와의 등무늬와 표흔



삽도 4 「木平」銘 암키와

삽도4 「목평(木平)」 명(銘) 암키와



삽도 5 암키와 통무늬

5. 특수기와

1) □尾(삽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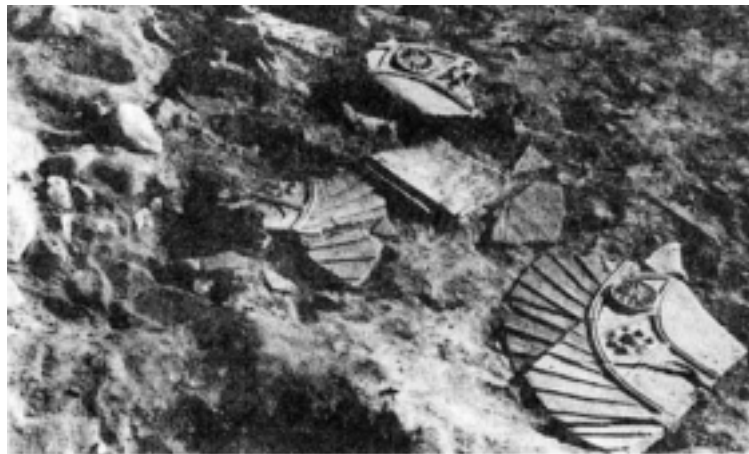
건물 지붕의 용마루 양쪽 끝에 얹히는 날짐승의 꼬리형상을 한 대형 장식 기와로 원형으로 복원될 수 있는 1개분이 강당지 동북편에서 발견된 1호 폐와무지와 2호 폐와무지 부근에서 일괄로 출토되었다(삽도7). 복원 결과 높이 182cm, 폭 150cm크기로 밝혀졌는데 양날개와 배부분에는 연화문과 인물상(人物像)이 장식되었다. 이 치미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들어 구운 뒤에 조립한 특이한 제작기법을 보이고 있다.

2) 사례와(瓦)

건물 지붕의 사방 처마끝의 사례면(面)에 장식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판형(板形)의 장식 기와로 황룡사에서 처음으로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모두 연화문이 장식되고 있는데 무늬의 형태와 구성내용에 따라 3형식으로 구분된다.



삽도 6 치미



삽도 7 치미 출토상태

① 연화문 사례와 A형식(形式)(圖69)

복엽의 연화문이 위·아래로 2개가 배치되고 주위의 여백에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이 장식된 화려한 의장(意匠)의 장식기와이다. 높이 45.7cm, 폭은 상단이 40cm, 하단이 35.5cm로 대형(大形)이며 외연에 폭이 넓고 높은 주연을 두었으나 무늬장식은 없고 기와면 중앙과 위쪽과 아래쪽 좌우에 각각 5개의 못구멍이 뚫려있다. 목탑지 서편의 3호 폐와무지에서만 1점이 출토되었다.

② 연화문 사례와 B형식(形式)(圖70)

앞의 A형식과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 장식무늬도 같으나 크기가 작고 연화문이 윗쪽에 1개만 배치되었으며 하단에 주연을 만들지 않았다. 못구멍은 기와의 중앙과 상단 좌우의 3곳에만 뚫려 있으며 크기는 높이가 33cm 폭이 36.2cm로 높이에 비해 폭이 넓다. 앞의 A형식과 함께 3호 폐와무지에서만 소량이 출토되었다.

③ 연화문 사례와 C형식(形式)(圖71, 72, 73, 74, 75, 76)

모두 앞에서 살펴 본 연화문 수막새 A형식과 같은 모습의 연잎으로 구성된 연화문이 장

식되고 있는데 기와의 크기와 무늬의 구성내용이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두가 파편으로만 수습되어 전체적인 형태나 크기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출토양상도 연화문 수막새 A형식과 같이 폐와무지에서는 출토예가 없고 건물지 주변에서 소량씩 출토되었다.

Ⅲ. 황룡사지(皇龍寺址) 폐와(廢瓦)무지의 삼국시대(三國時代)

신라(新羅)기와 출토양상

1. 황룡사지(皇龍寺址) 발굴조사(發掘調査) 개요(概要)

황룡사지의 발굴과정이나 발굴유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출간된 발굴조사보고서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나, 기와의 제작이나 변화는 가람(伽藍)의 변화에 따른 건물의 신축 또는 보수 중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황룡사에 관한 문헌의 기록을 통한 황룡사의 연혁과 발굴조사 결과 밝혀진 가람의 변천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황룡사에 관한 기록은 주로 고려시대(高麗時代) 김부식(金富軾)(1075~1151年)이 편찬한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고려승(高麗僧) 일연(一然)(1206~1286年)이 편찬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비교적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즉

「십사사년춘이월(十四年春二月) 왕명소사(王命所司) 축신궁어월성동(築新宮於月城東) 황룡견지기(黃龍見其地) 왕의지(王疑之) 개위불사(改爲佛寺) 사호왕황룡(賜號曰皇龍)」(《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사(卷第四)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흥왕조(眞興王條))

「新羅第二十四眞興王卽位十四年癸酉二月 將築紫宮於龍宮南 有黃龍現其地 乃改置爲佛寺號黃龍寺…

(신라제이십사진흥왕즉위십사년계유이월 장죽자궁어용궁남 유허룡견지기 대개치위불사호 황룡사)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제삼(卷第三) 탑상제사(塔像第四) 황룡사장육조(皇龍寺丈六條))라 하고 있고, 그후의 기록을 보면

「이십칠년춘이월(二十七年春二月) … 황룡사필공(皇龍寺畢攻)」(《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사(卷第四)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흥왕조(眞興王條))

「자기축년(至己丑年) 주위장우(周圍墻宇) 지십팔년(至十七年) 방필(方畢)」(《삼국유사(三國遺事)》 권제삼(卷第三) 탑상제사(塔像第四) 황룡사장육조(皇龍寺丈六條))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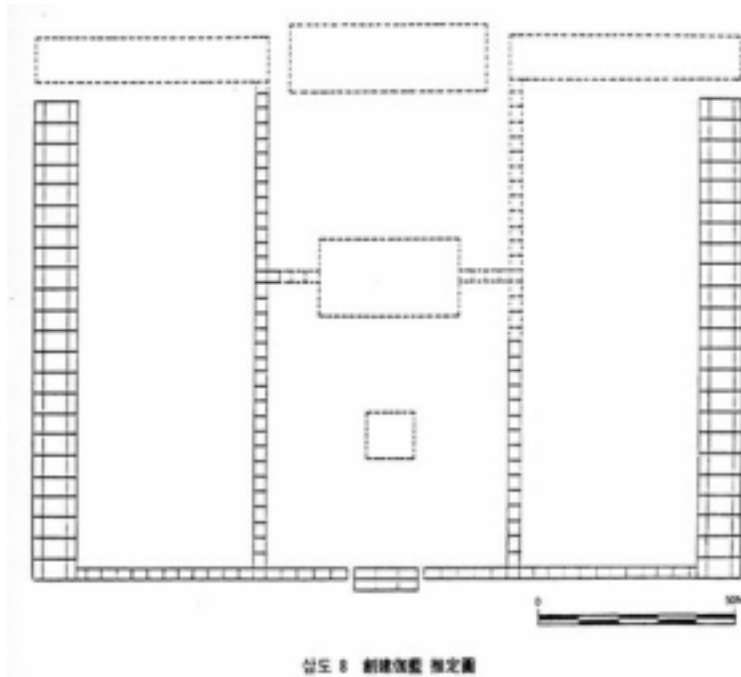
위의 기록을 미루어 황룡사는 진흥왕(眞興王) 14년(553年)에 창건되기 시작하여 사기에 따르면 진흥왕 27년(566年), 유사에 따르면 사기의 연대보다 3년후인 동왕(同王)30년(569年)에 이르러 주위에 담장을 두름으로써, 시작한 지 17년만에 가람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발굴조사 결과 황룡사가 창건되기 전 이지역 일대가 늪지였고, 황룡사는 이 늪지를 매립하여 대지(臺地)를 조성하고 그 위에 가람(伽藍)이 조성된 것임이 밝혀져 신궁(新宮)(또는 자궁(紫宮))을 짓는데 그곳에서 황룡(黃龍)이 나와 불사(佛寺)를 이룩하게 되었다는 앞의

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984.

기록이 주목되며, 이때 세워진 가람이 황룡사의 창건가람(創建伽藍)으로 판단된다.

그 후의 기록을 보면 진흥왕(眞興王)35年(574年)에 황룡사의 본존(本尊)이었던 장육삼존불(丈六三尊佛)이 주성(鑄成)되면서⁹⁾, 10年 뒤인 진평왕(眞平王)6年(584年)에 장육존상(丈六尊像)을 모실 금당(金堂)이 다시 조성되고¹⁰⁾, 이어서 선덕왕(善德王)14年(645年)에는 금당(金堂) 남쪽에 구층목탑(九層木塔)¹¹⁾이 세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발굴조사 결과로 보면 이 9층목탑이 완성될 때 짚에는 창건 가람과는 그 규모와 구조가 다른 중건가람(重建伽藍)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의 기록에 나타난 각 건물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9층목탑은 성덕왕(聖德王)때인 718年부터 고려 현종(獻宗)2年(1096年)까지 지진과 벼락으로 인해 6차례나 중성(重成)¹²⁾되었으며, 특히 고려 현종(顯宗)3年(1012年)¹³⁾에는 경주의 조유궁(朝遊宮)을 헐어 그 부재를 써서 탑을 수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13年(754年)에는 황룡사종(黃龍寺鐘)¹⁴⁾이 주조됨에 따라, 이시기를 전후하여 종루가 추가로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 예종원년(睿宗元年)(1105年)에는 당시의 상서(尙書) 김한충(金漢忠)을 파견하여 황룡사의 낙성(落成)을 보게 하는데¹⁵⁾ 이때 황룡사에 대한 마지막 큰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삽도8 창건가람(創建伽藍) 추정도(推定圖)

9) 일연, [삼국유사], 卷第三 塔像 第四 黃龍寺丈六條

「…鑄成史 尊像 一鼓而就 重三萬五千七斤 入黃一萬一百九十八分… 安於黃龍寺」

10) 일연, 앞의 책, 黃龍寺丈六條

「寺記云 眞平王五(六)年 甲辰 金堂造成…」

11) 일연, 앞의 책, 黃龍寺九層塔條

「…善德王代 貞觀九十年乙巳 塔初成…」

12) 황룡사 구층목탑의 6차례 重成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 卷第三 塔像第四 黃龍寺九層塔條에 잘 나타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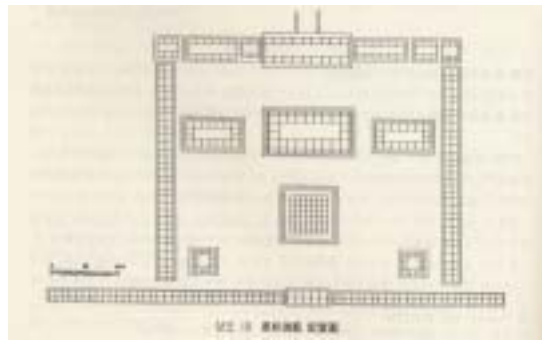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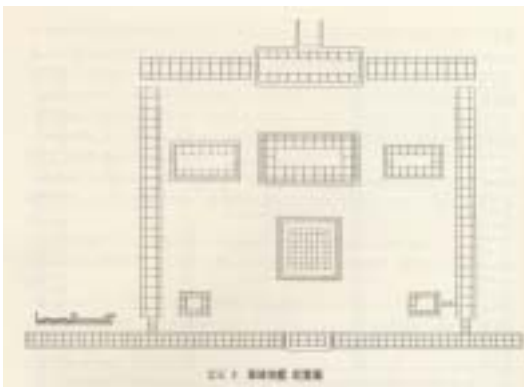
13) 「고려사」, 世家, 顯宗三年條

14) 일연, 앞의 책, 皇龍寺丈六條

15) 「고려사」, 世家, 睿宗元年條

그후, 황룡사는 고려 고종(高宗)25年(1238年)에 이르러 몽고병(蒙古兵)의 침입을 받아 가람전체가 소실되는데¹⁶⁾,이 후에 재건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이 후의 건물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황룡사는 이때에 완전히 폐사(廢寺)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모와 건물배치가 다르고 시기적으로도 선후관계가 있는 2개의 가람지(伽藍址)가 중복되어 있음이 발굴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리고 창건가람 완성후 다시 단계적으로 건물기단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건물이 배치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가람을 이루는 중건가람은 그후 수세기 동안 존속되면서 전체적인 가람배치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건물기단이 여러번에 걸쳐 보수 증창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도 발굴조사 결과 알게 되었다. 따라서 황룡사는 창건가람에서부터 몽고(蒙古)의 병화(兵火)로 가람전체가 소진(燒盡)될 때까지 기본적인 구조로 보아서는 창건가람과 중건가람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으나, 세부적으로는 각 건물지의 변화에 따라 여러차례에 걸쳐 가람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삽도 9 중건가람(重建伽藍) 배치도(配置圖) 삽도 10 최종가람(最終伽藍) 배치도(配置圖)

발굴조사 결과 밝혀진 가람배치(伽藍配置)의 내용을 변천순서에 따라 창건가람(創建伽藍), 중건가람(重建伽藍), 최종가람(最終伽藍)으로 나누어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창건가람(삽도8): 신라 진흥왕14年(553年)에 신궁(新宮)(또는 자궁(紫宮))으로 짓기 시작하다가 황룡(黃龍)의 출현으로 이를 고쳐 불사(佛寺)로 조영하여 사기(史記)의 진흥왕27年(566年)에 필공(畢攻)하고¹⁸⁾ 유사(遺事)의 동왕(同王)30年(569年)에 주위에 담장을 둘러 17年만에 완공¹⁹⁾하였다는 가람이다.

이 창건가람은 중건가람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것으로 중문지(中門址), 강당지(講堂址)의 일부, 강당의 동·서편으로 각각 길게 배치된 승방(僧房)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동·서회랑지(東·西廻廊址), 그리고 동·서회랑지 밖으로 나란히 배치된 동·서승방지(東·西僧房址)와 중문지 양쪽에서 동·서회랑지를 지나 각각 동·서승방지에 까지 연결된 남회랑지의 등

16) 일연, 앞의 책 皇龍寺九層塔條 「又高宗十六年 戊戌冬月 西山兵火 塔寺丈六殿宇皆災」

17) 조유진, 앞의 논문, 1987

필자는 이 논문에서 황룡사의 각 건물지의 변화에 따른 伽藍의 변경과정을 1次伽藍부터 5次伽藍까지 세분하고 명하고 있다.

18) 김부식, [삼국사기]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條

19) 일연, 앞의 책, 皇龍寺丈六條

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창건가람의 탑지(塔址)와 금당지(金堂址)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유무(有無)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두 금당지(金堂址)의 위치가 뒤의 중건가람지와 중복되어 있었고, 또 중간가람의 탑지(塔址)와 금당지는 그 기초수법이 건물에 들어설 자리의 지반(地盤) 흙을 모두 파내고 여기에 돌과 흙을 교대로 섞어가며 기단을 다져 올린 굴광기단(掘廣基壇)²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중건가람(삼도9): 신라 진흥왕35年(574年)에 황룡사의 본존인 장육삼존불(丈六三尊佛)이 주조²¹⁾되면서 이 거대한 불상을 안치시키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금당(金堂)과 그 좌우에 東·西金堂이 건립되고, 그후 선덕왕대(善德王代)에 들어와 금당의 남쪽에 9층목탑²²⁾이 건립되면서 완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가람이다.

이 중건가람은 창건가람에 비해 전체적인 규모가 확대되고 각 건물도 크게 중건되고 있다. 가람(伽藍)의 배치는 중문지, 목탑지, 금당지, 강당지가 남북 일렬로 나란히 배치되었는데, 금당 좌우에 동·서금당이 세워져 삼금당(三金堂)이 동서로 나란히 배치되면서 금당지 좌우에 남북으로 설치되어 있던 창건가람의 동·서회랑지가 철거되고 동·서승방지를 회랑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게 된다. 금당지 남쪽으로는 거대한 높이의 9층목탑이 건립되고, 강당지는 창건가람 강당지와 중복된 위치에 다시 세워지며, 중문지와 남회랑지는 창건가람, 중문지 및 남회랑지보다 남쪽으로 이동되어 복랑(複廊)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강당 좌우에는 역시 창건가람의 건물지와 중복된 위치에 별도의 긴 건물지가 있었으며, 후에 경덕왕대(景德王代)에 남회랑과 동·서회랑이 만나는 지점 안쪽, 즉 목탑지 동남편과 서남편에 종루(鐘樓)와 경루(經樓)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었다²³⁾.

3. 최종가람(삼도10): 고려(高麗)고종(高宗)25年(1238年)폐사(廢寺)²⁴⁾되기 직전까지 존속되었던 가람이다.

이 최종가람은 중건가람과 기본적인 구조나 건물의 위치 등에는 변동이 없으나, 건물이 축소 분리되거나, 개축된 흔적을 보이고 있어, 황룡사는 중건가람 완성 후에도 수세기 동안 존속되면서 여러 차례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폐와(廢瓦)무지의 성격(性格)

황룡사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각종 기와들 중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신라기와로 볼 수 있는 고식(古式)기와들은 대부분 사지(寺址)의 당시 생활면(生活面)이었던 구지표층(舊地表層) 아래 곳곳에서 발견된 노폐물(老廢物)무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이러한 노폐물 무지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폐와(廢瓦)무지였고, 간혹 폐전(廢轉)무지나 폐토기(廢土器)무지도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노폐물(老廢物)무지는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 가지 쓰레기를 모아 두었던 쓰레기 퇴적장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물론 황룡사지 어딘가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20) 日本式 표현으로 “掘りみ基壇”을 말하는 것으로 김정기 前문화재연구소장이 고쳐 부른 용어이다

21) 주6 참조

22) 주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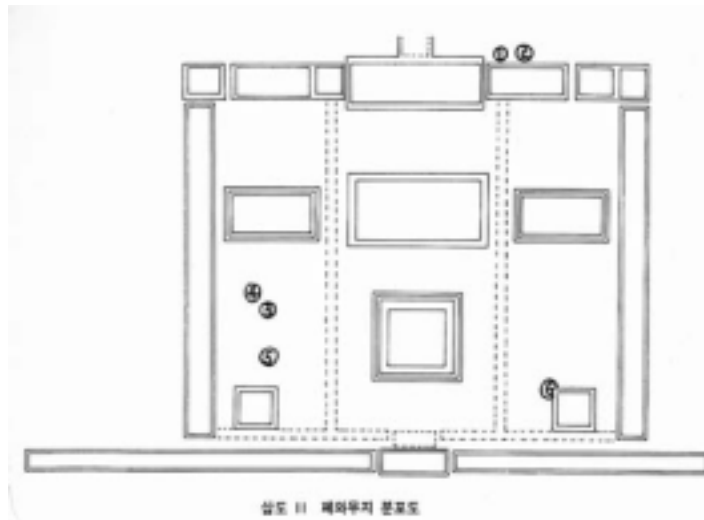
23) 일연, 앞의 책 卷第三 塔像第四 黃龍寺鐘

「以天寶一三甲午 鑄皇龍寺鐘 長一丈三寸 厚九寸 入重十九萬七千五百八十斤…」

위의 기록으로 미루어 황룡사 종이 주조되는 AD754年을 전후하여 鐘樓가 건립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대칭되는 위치에 같은 규모의 經樓도 이시기에 함께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24) 주 13 참조

있는 쓰레기 퇴적장이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면 기와나 전(塼), 또는 토기(土器)만이 구덩이를 달리하여 따로 따로 묻힐 수는 없는 것이고, 한 구덩이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두루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굴과정에서 발견된 노폐물무지들은 가 구덩이에 폐와(廢瓦), 폐전(廢塼), 또는 폐와무지에 있어서는 소량이 토기들이 간혹 섞여 있을 뿐 암·수키와와 막새기와들만이 묻혀 있었다. 따라서 이들 폐와무지는 어느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폐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건물지 주변의 가까운 장소에 땅을 파고 묻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리고 각 폐와무지의 윗층으로는 당시 사지(寺址)의 생활면(生活面)인 구지표층(舊地表層)이 형성되어 있어 교란된 흔적이 없었고, 이러한 폐와무지들은 그 위치나 출토된 기와의 내용으로 보아 일시에 생긴 것이 아니고 황룡사가 수세기에 걸쳐 오랫동안 존속되었던 만큼 필요에 따라 하나 둘씩 생겨난 것이었다. 따라서 각 구덩이의 크기나 매몰된 유물의 양도 달랐으며, 또 각 구덩이에 묻힌 기와들은 그 형식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황룡사지의 폐와무지에서 일괄로 출토된 기와들은 모두가 동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일시에 폐기되어 묻힌 것들이기 때문에 폐기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기간동안 함께 사용되었던 것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삼도 11 폐와무지 분포도



삼도 12 폐와무지(1호) 노출상태

본고에서는 이러한 폐와무지들 가운데 삼국시대의 신라기와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몇 개의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기와들을 통해 삼국시대 신라기와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기와들과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들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삼국시대

신라기와의 년을 설정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3. 폐와(廢瓦)무지별(別) 신라기와의 출토양상

황룡사지의 사역(寺域)안에서 발견된 폐와무지는 모두 20개소가 넘고 있는데 이 중 삼국시대 신라기와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폐와무지는 모두 6개소였다. 그 분포를 살펴보면 강당지 동북편에서 2개소, 종루지로 추정되고 있는 목탑지 동남편의 건물지 서북쪽 기단과 일부 중복된 위치에서 1개소, 목탑지와 중건가람(重建伽藍)서회랑지 사이에서 폐전(廢塼)들과 함께 소량의 기와가 묻힌 폐전(廢塼)무지 1개소와 폐와무지 2개소가 각각 발견되었다(삽도 11).

이들 각 폐와무지의 규모와 기와의 출토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1).

1) 폐와(廢瓦)무지 1호

강당지 동북쪽 기단 북편에서 발견된 작은 규모의 폐와무지로 3점의 연화문수막새와 암·수키와 파편들이 소량 출토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수막새를 형식별로 보면 단엽연화문 A₁ 형식(圖1), C₁ 형식(圖11), E₂ 형식(圖18)의 수막새가 각각 1점씩 발견되고 있다. 출토량이 소량이어서 형성시기나 다른 폐와무지와 상대년에는 문제가 있으나 출토된 수막새의 형식범위가 대체로 고식(古式)의 단엽연화문에 한정되어 있고, 특히 다른 폐와무지에서는 전혀 출토예(例)가 없는 A₁ 형식의 수막새가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6개의 폐와무지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형성된 폐와무지로 보이며 여기에서 출토된 수막새들은 황룡사에서 초기에 사용되었던 기와일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2) 폐와(廢瓦)무지 2호(삽도12)

강당지 동북편의 1호 폐와무지 바로 동편에서 발견된 것으로 동서 4.3m, 남북 3.8m, 깊이 90cm크기의 비교적 큰 구덩이에서 연화문수막새 89점, 당초문(唐草文)암막새 2점 등 모두 91점의 막새기와와 「목평(木平)」명(銘)의 암키와 파편을 비롯한 다량의 암·수키와 파편들이 출토되었다.

이 폐와무지에서는 여러 형식의 암·수막새기와들이 출토되었는데 수막새에 있어서는 역시 단엽화문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연잎 끝에 반전이 나타나는 단엽연화문 D형식(圖13, 14, 15, 16)이 37점으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으며 복엽연화문 A₁ 형식(圖36)이 4점 중엽연화문 A₂ (圖41) 9점이 각각 출토되었다. 암막새로는 당초문 A, B형식이 각각 1점씩 소량이 발견되며 「목평(木平)」명(銘)의 암키와 파편이 함께 출토되었다. 그리고 이 폐와무지 바로 북편에서는 삽도 9의 대형치미 1개분이 넓은 범위에 걸쳐 여러 조각으로 분리된 채 출토되었다(삽도10). 출토된 수막새 중 단엽연화문 A형식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여러형식의 수막새들이 출토되고 있으며 비록 소량이나 황룡사지에서 비교적 늦은 시기에 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복엽과 중엽형식의 수막새와 당초문암막새가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호 폐와무지보다는 다소 늦은 시기에 형성된 구덩이로 생각된다.



삽도 13 폐와무지(3호)
노출상태



삽도 14 폐와무지(4호)
노출상태



삽도 15 폐와무지(5호)
노출상태

3) 폐와(廢瓦)무지 3호(삽도13)

목탑지와 중건가람 서회랑지 사이에서 발견된 동서 6.5m, 남북 5m, 깊이 1m 크기의 구덩이로 사역(寺域)안에서 발견된 폐와무지 중 가장 큰 것이다. 이 폐와무지에서는 다량의 암·수키와 파편들과 함께 117점의 연화문수막새와 11점의 당초문 암막새가 출토되었으며 특히 황룡사지에서 처음으로 출토되고 있는 圖69, 70의 연화문 사례기와가 이곳에서만 소량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기와의 내용을 보면 앞의 2호폐와무지와는 달리 복엽연화문 형식이 77점으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며 여러 형식의 단엽연화문과 중엽연화문 수막새가 소량씩 출토되었고 당초문 암막새의 출토량이 좀더 증가하고 있다.

4) 폐와(廢瓦)무지 4호(삽도14)

앞의 3호 폐와무지 바로 남편에서 발견된 동서 3.4m, 남북 2.7m, 깊이 1.2m 크기의 구덩이로 보상화문전(寶相花文塼)을 비롯한 다량의 전파편(塼破片)들과 함께 연화문수막새 7점, 귀면문수막새 1점 등 8점의 막새기와와 암·수키와 파편들이 출토되었다. 이 폐와무지는 기와보다는 전(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서 폐와무지가 아닌 폐전(廢塼)무지로 여기에서 출토되고 있는 막새기와들이 소량에 불과하나, 대체로 단엽형식이 연화문수막새가 주로 발견되며 앞서 설명한 폐와무지에서는 출토예가 없었던 귀면문 수막새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다량이 출토되고 있는 보상화문전(寶相花文塼)은 이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수막새의 연대 추정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5) 폐와(廢瓦)무지 5호(삽도15)

목탑지와 중건가람 서회랑지 사이의 3호, 4호 폐와무지 남편에서 발견된 것으로 동서 1.6m, 남북 3m, 크기의 비교적 작은 구덩이에서 연화문수막새 371점, 귀면문 수막새 50점과 당초문암막새 46점 등 467점에 이르는 많은 양의 막새기와와 다량의 암·수키와 파편들이 출토되었다. 이 폐와무지에서는 중엽연화문 A₁ 형식(圖40)의 수막새가 186점이 출토되고 있어 중엽형식의 연화문수막새가 주류를 이루며 단엽형식으로는 단엽연화문 L 형식(圖29, 30)의 수막새가 101점으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귀면문수막새(圖49, 50)가 50점이 출토되고 있어 각 폐와무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며 당초문암막새도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6) 폐와(廢瓦)무지 6호(삽도16)

목탑지 동남편의 중루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서북쪽 기단과 일부 중복되어 건물지 기단 안쪽까지 구덩이를 형성하고 있는 폐와무지로 폭 4.5m, 길이 약 70cm 규모의 구덩이에 연화문 수막새 166점, 귀면문수막새 31점, 당초문암막새 18점 등 모두 215점의 막새기와와 다량의 암·수키와 파편들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막새기와를 보면 중엽연화문 A₁ 형식의 수막새가 81점으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며 그 다음이 단엽연화문 L 형식으로 모두 46점이 출토되었고 귀면문수막새와 당초문암막새도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어 앞의 5호 폐와무지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의 다른 폐와무지에서는 출토예가 보이지 않는 복엽연화문 B형식(圖39)과 중엽연화문 B₁ 형식(圖43), C형식(圖46)의 수막새 등 폐와무지에서 출현 시기가 가장 늦은 것으로 추정되는 형식의 수막새가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6개의 폐와무지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형성된 구덩이로 판단된다.

4. 폐와(廢瓦)무지 출토 신라기와의 분기(分期)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황룡사지의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기와들은 그 형태나 장식무늬의 형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폐와무지에는 기와들만이 출토될뿐 다른 종류의 폐기물들이 거의 섞이지 않았으며, 폐와무지의 윗층으로는 이러한 구덩이가 형성된 이후의 생활면인 구지표층이 형성되어 있었고, 교란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한 곳에 여러번에 걸쳐 폐와를 묻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폐와무지들은 건물의 보수나 중창, 또는 번와 등으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폐와들이 일시에 발생하게 되자 이러한 폐와들은 한구덩이에 묻은 것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이들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기와들은 폐기되기 직전까지는 일정기간 동안 함께 사용되었던 기와들로 그 형식범위와 사용시기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었다²⁵⁾.

황룡사지에서 발견된 폐와무지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건물지 기단 주변이나 건물

과 건물지 사이의 공지(空地)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어느 시기에 폐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손쉽게 묻을 수 있는 장소로는 이러한 건물지주변의 빈공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루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서북편에서 발견된 6호 폐와무지는 종루지 기단의 서북쪽 부분과 일부가 중복되어 있었는데 건물지 기단 안쪽에서는 전혀 구덩이의 흔적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토층조사(土層調査)결과 이 종루지는 6호 폐와무지의 윗층에 형성되어 있던 구지표층(舊地表層) 위에 건물지 기단을 조성한 것임이 밝혀졌다(삽도17). 따라서 이 폐와무지는 종루지가 건립되기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구덩이임에 틀림없었으며 이 지역은 종루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황룡사 창건 당시부터 빈공간으로 남아 있던 곳이기도 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景德王)13年(A.D.754)에 황룡사의 종(鐘)이 주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²⁶⁾ 이 종이 만들어짐에 따라 이 시기를 전후하여 목탑지의 동남편에 종루(또는 종각)를 세우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6호 폐와무지는 종루지의 건립연대보다는 앞서는 시기 즉 A.D.754年 이전에 형성된 것에 틀림이 없으며, 이

폐와무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각종 기와들은 A.D.754年 이전에 제작되어 사용되었던 기와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와무지 출토 기와들은 하한년대(下限年代)가 A.D.754年일 뿐이지 실연대는 이와 동떨어진 것이 많을 수 있는 것이다. 기와는 토기나 자기 등 일상생활 용기들과는 달라서 비교적 그 수명이 긴 것이어서 함께 일시에 폐기된 기와라 할지라도 그 제작시기와 사용기간은 아주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폐와무지들은 일시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황룡사가 수세기 동안 존속되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 둘씩 생겨난 것으로 구덩이 자체의 형성시기가 각각 다를 수 있으며 각 폐와무지에 묻힌 기와들의 형식범위도 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황룡사지에서 발견된 폐와무지 중 삼국시대 신라기와들이 출토되고 있는 폐와무지 출토 기와들은 창건 당시 즉, 6세기 중엽부터 늦어도 8세기 중엽 이전에 제작되어 황룡사지에서 사용되었던 기와들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이 폐와무지 출토 신라기와들은 창건 당시부터 삼국기(三國期) 신라시대와 통일초기 신라기와의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폐와무지 출토기와의 고찰을 통하여 대체적인 신라기와의 상대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삽도 16 폐와무지(6호)
노출상태

25) 최병현, 「황룡사지 출토 고신라토기」, [윤무병박사 회갑기념논총], 1984, P. 231

26) 주23 참조



삼도 17 6호폐와무지와
중무지

그러면 이와 같은 폐와무지 출토 기와를 막새기와를 중심으로 분기별로 나누어 각 분기에 해당되는 막새기와들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각 분기의 연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제(第)1기(期)

단엽연화문 A형식과 B형식의 수막새가 이 시기의 것으로 생각된다. 연잎의 끝에 반전이 없고 좁고 높은 민무늬의 주연을 두고 있다. 폐와무지에서는 A형식중 A₁ 형식만이 출토되고 있는데 연잎의 끝이 뾰족하게 처리되었고 폐와무지 중 가장 이른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1호 폐와무지에서만 출토되고 있어 가장 빠른 형식의 수막새로 생각된다. B형식의 수막새 중 폐와무지에서는 B₁, B₃, B₄ 형식이 발견되고 있는데 연잎의 형태가 위로 가면 폭이 넓어지고 연잎의 중앙에 높은 능선(稜線)이 나타나고 있어 A형식과 차이를 보인다. 이 B형식의 수막새는 2호 폐와무지와 3호 폐와무지에서 각각 소량씩 출토되고 있는데 A형식의 수막새와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보이나 B₄ 형식은 보다 늦은 시기의 것으로 생각된다.

암막새에 있어서는 이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수장식기와와는 연화문 사례와 C형식이 이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속하는 기와들은 황룡사에 있어서 초기양식들로 보여지며 황룡사의 창건가람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제작시기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 그 출현시기를 창건가람 건립시기인 A.D.553~A.D.569년에 두고자 한다.

2) 제(第)2기(期)

수막새에 있어서 단엽연화문 C형식과 D형식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수막새로 생각된다.

1期형식의 수막새에 비해 연잎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볼륨이 연잎 중앙, 또는 끝부분에 강조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연잎의 끝이 반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C형식과 D형식의 수막새는 1期형식에 비해 자방이 눈에 띄게 넓어졌으며 모두 높게 돌출시켜 5개, 또는 7개씩의 굽은 연자를 배열하고 있다. 주연은 모두 민무늬의 높은 주연을 두고 있으나 폭이 좀더 넓어졌다. 이 시기의 수막새들은 각 폐와무지에서 모두 발견되고 있으며 비교적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이 중 C형식의 수막새는 1호 폐와무지와 2호 폐와무지에서만 소량이 출토되고 있어 이 시기의 수막새 중 가장 이른 형식으로 보이며 D형식의 수막새는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에 주류를 이루었던 형식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암막새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막새기와 이외의 장식기와로 강당지 동북편의 1호 폐와무지와 2호 폐와무지 주변에서 출토된 치미와 연화문사례와 A, B형식이 이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기와들은 대체로 중건가람 건립초기에 제작되어 사용되었던 기와들로

생각되는데 그 연대는 빠른 형식의 수막새가 창건가람 완성 후부터 중건가람 건립초기에 해당되는 6세기 후반, 늦은 형식의 것이 6세기 말경에는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제(第)3기(期)

이 시기에 나타나는 수막새 무늬의 특징은 연잎 끝에 반전이 없어지고 연잎의 끝이 둥글게 처리된 6엽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시기에 속하는 수막새로는 단엽연화문 E형식, F형식, G형식, H형식과 복엽연화문 A형식을 들 수 있는데 단엽연화문 E₁, E₂, F형식과 복엽연화문 A₃ 형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6엽형식으로 되어있다. 2期の 수막새에 비해 막새의 크기가 다소 작은 편이며 단엽연화문 H형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방의 크기가 작다. 연잎의 길이와 폭이 거의 같게 표현되고 있어 단엽연화문 H형식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연잎 중앙에는 세로로 모두 가는 능선(稜線)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수막새 중 복엽연화문 A₁ 형식과 A₂ 형식은 3호 폐와무지에서 거의 대부분이 출토되었는데 2期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연화문사래와 A형식과 B형식에 장식된 복엽연화문으로 보아 다른 형식의 수막새들보다 앞서는 시기의 것으로 생각되며 단엽형식의 수막새 중에서는 2期の 전통이 남아 있는 E형식이 빠른 시기의 수막새로 생각된다. 그리고 제작시기는 다소 늦을 것으로 생각되나 귀면문(鬼面文)수막새 A, B형식도 이 시기의 기와에 나타나는 새로운 장식무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쯤에는 당초문 A, B형식의 암막새도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의 기와들은 늦어도 7세기초부터 중건가람이 완성되는 9층목탑 건립시기까지는 제작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前時期의 전통이 남아있는 단엽연화문 E형식 등 빠른시기의 것이 늦어도 7세기 초에는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늦은 시기의 기와들도 7세기 중반경에는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제(第)4기(期)

황룡사지에서 삼국시대 신라기와들이 출토되고 있는 폐와무지 출토 기와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생각되는 기와들이다. 이 시기의 막새기와는 전기(前期)양식과 후기(後期)양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전기에 속하는 막새무늬의 형식은 넓은 막새면에 커다란 8엽의 연잎이 장식된 단엽연화문 L형식, M₁ 형식의 단엽형식 수막새가 나타나며 복엽연화문 C형식이 이 시기의 것으로 생각된다.

후기의 수막새로는 단엽연화문 I형식, J형식, K형식, M₂ 형식, N형식, O형식, P형식과 중엽연화문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연잎의 끝이 갈라지면서 내곡(內曲)되고 인동문(忍冬文)이 장식되기도 하는 단엽연화문 O형식과 P형식이 다소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중엽연화문에 있어서는 A형식이 B형식과 C형식보다 앞서는 시기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막새기와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삼국기(三國期)양식과 통일초기 양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신라기와로 생각되는 이 시기 전기(前期)의 기와형식들은 7세기 중반을 전후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후기의 기와들 중 빠른 형식의 것이 7세기 후반, 즉 통일초기양식으로 생각되고, 늦은 시기의 기와는 7세기 말경에서부터 황룡사지 폐와무지의 하한(下限)으로 생각되는 8세기 중엽 이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폐와무지별 막새기의 출토형식과 수량
<단엽연화문 수막새>

형식	A ₁	B ₁	C ₁	D ₁	E ₁	F ₁	G ₁	H ₁	I ₁	J ₁	K ₁	L ₁	M ₁	N ₁	O ₁	P ₁	계
1호	1				1					1							3
2호		1	1	1	2	2	2	25		1	12	2	1	3	4		78
3호				1						1	3	8	1	1	1	21	36
4호								1				2					4
5호								27	1								28
6호								4		1	1				1	2	7
계	1	1	1	2	3	2	2	77	1	2	14	2	3	7	28	3	126
총량(조각)	1	1	22	47	13	30	14	280	6	24	38	13	6	35	34	131	485

형식	A ₂	A ₃	B ₂	C ₂	계
1호	-	-	-	-	-
2호	4	-	-	-	4
3호	23	4	-	-	27
4호	1	-	-	-	1
5호	1	1	-	-	2
6호	-	-	1	1	2
계	30	5	1	1	37
총량(조각)	30	5	1	1	37

형식	A ₄	A ₅	A ₆	B ₃	C ₃	계
1호	-	-	-	-	-	-
2호	1	3	-	-	-	4
3호	2	8	-	-	-	10
4호	-	-	-	-	-	-
5호	188	2	2	-	-	192
6호	81	-	-	3	2	86
계	270	13	2	3	2	290
총량(조각)	270	13	2	3	2	290

형식	A	B	계
1호	-	-	-
2호	-	-	-
3호	-	-	-
4호	1	-	1
5호	47	3	50
6호	39	11	50
계	48	14	62
총량(조각)	48	14	62

형식	A	B	계
1호	-	-	-
2호	1	1	2
3호	11	-	11
4호	-	-	-
5호	16	28	44
6호	7	18	25
계	35	47	82
총량(조각)	35	47	82

표 1. 폐와무지별 막새기와 출토형식과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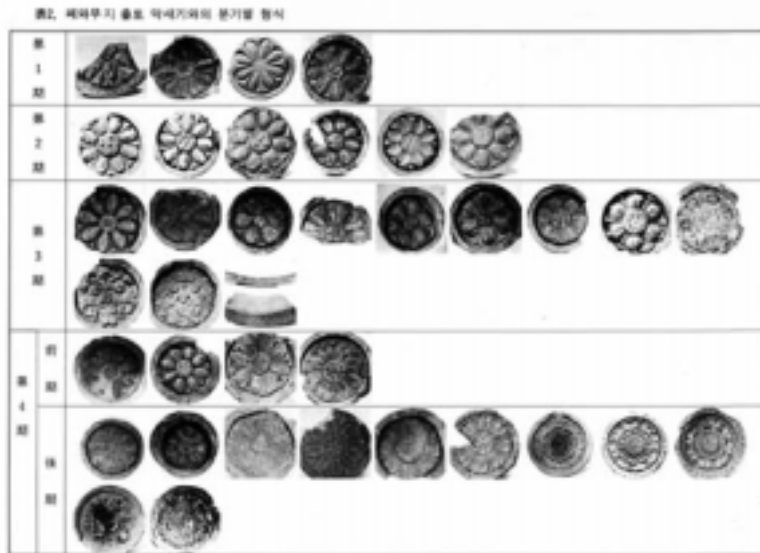


표 2. 폐와무지 출토 막새기와의 분기별 형식

IV. 삼국시대(三國時代) 신라(新羅)기와의 년(編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황룡사지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신라기와는 창건 당시부터 8

세기 중엽 이전에 제작되어 황룡사지에서 사용되었던 기와들로 특히 삼국시대(三國時代) 신라기와의 양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전체 신라기와의 년 설정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와무지의 출토 신라기와를 중심으로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신라기와의와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신라기와의 대체적인 년을 분기별(分期別)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1. 제(第) I 기(期)

<수막새>

이시기의 수막새로는 신라 초기의 유적지인 월성(月城)에서 출토되고 있는 단엽연화문 수막새(圖77, 78)을 들 수 있다. 이 수막새들은 월성(月城)주변에 설치된 해자(垓字)²⁷⁾안의 최하층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형태가 백제의 유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식(古式)의 수막새와 비슷하며 특히 圖77의 수막새와 유사한 모습의 수막새가 公州의 대통사지(大通寺址)(A.D.527年)의 창건와(創建瓦)로 추정되고 있는데²⁸⁾ 황룡사지에서는 전혀 출토된 예가 없다. 신라에 있어서는 막새기와의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확실한 자료가 없어 잘 알 수는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경주(慶州) 흥륜사(興輪寺) 창건(創建)에 대하여 「명흥공(命興工) 속방질검(俗方質儉) 편아용옥(編芽茸屋) 주이강연(住而講演)²⁹⁾」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흥륜사의 창건연대가 A.D.544年 임을 감안할 때 이 시기까지도 막새기와의 없었거나 보편화되지 않았던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는데³⁰⁾ 사찰(寺刹)이나 일반 민가에서는 막새기와의 사용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형식의 수막새가 신라의 초기 궁성건축(宮城建築)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형식의 수막새가 황룡사지에서는 전혀 출토된 예가 없고 백제지역에서의 출토예로 보아 황룡사지 창건(創建)이전시기, 즉 6세기 전반경에는 신라에 이러한 백제양식의 수막새가 제작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암막새>

지금까지도 내림새가 달린 암막새가 통일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황룡사지에서도 이 시기에 속하는 암막새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에 설명한 圖77, 78의 연화문수막새와 함께 월성(月城)에서 출토된 암막새(圖79)는 출토 층위로 보아 앞의 수막새와 함께 사용된 동시기의 암막새로 신라지역에서는 가장초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인 형태가 얼핏 보기에는 토기(土器)항아리의 목 부분 파편과 같은 모습인데 무늬장식이 없는 민무늬로 두께가 매우 얇으며 암키와와 함께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암막새도 圖77, 78의 수막새와 함께 황룡사지 창건 이전시기인 6세기 전반경에는 제작되어 초기 궁성건축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황룡사지에서 전혀 발견된 예가 없어 그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암·수키와>

27) 月屋에 대한 전면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나 1977年 9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 의해 東門址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月城주변으로 노출되고 있는 垓字에 대한 발굴조사가 1984年 9월부터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다.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월성해자 시굴조사보고서], 1985

28) 박용진, 「백제와당의 체계적 분류」 [백제문화] 제9집, 공주교육대학, 1976, P. 27

29) 일연, 앞의 책, 卷第三 興法第三 阿道其羅條

30) 김화영, 「한국연화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76, P.35

이 시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암·수키와는 앞서 설명한 圖77, 78의 월성(月城) 출토 수막새와 圖79의 월성(月城)출토 암막새에 남아 있는 암·수키와를 통해 단편적이거나 알 수 있는데 완전한 형태의 것이 없어 전체 길이는 알 수 없으나 암키와의 경우 폭이 30cm, 두께는 1cm정도였으며 태토가 곱고 등무늬가 없으며 회백색(灰白色)의 색조를 띠고 있다. 제작기법에 있어서는 암키와의 경우 원통형으로 만들어 기와 안쪽에서 등쪽으로 기와 두께의 절반정도를 와도(瓦刀)로 칼질한 후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期の 기와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로서는 신라에서 가장 초기에 사용되었던 기와들로 판단되는데 황룡사지에서 전혀 출토예가 보이지 않고 백제지역에서의 출토예로 보아 6세기 전반경에는 제작되기 시작하여 사찰이나 일반 민가에 까지는 보편화되지 않고 주로 궁성(宮城)건축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I 期에 나타나는 막새기와들이 신라 막새기와의 상한(上限)으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선 신라 막새기와의 상한(上限)을 6세기 전반에 두고자 한다.

2. 제(第)II기(期)

<수막새>

이 시기의 수막새로는 먼저 1호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단엽연화문문 A형식(圖 1)의 수막새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막새에 장식된 무늬의 모습이 고구려의 초기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수막새 무늬와 많은 연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음각선을 그어 연꽃봉우리 모양으로 표현한 연잎의 모습은 고구려의 무용총(舞踊塚)³¹⁾천장에 그려진 연꽃그림 (삼도 18)³²⁾이나, 신라의 황남대총(皇南大塚) 북분출토(北墳出土) 칠기(漆器)에 그려진 연꽃그림 (삼도 19)³³⁾과 유사하며, 연봉우리 모양의 연잎이 통구(通溝)에서 출토된 연화문수막새(圖80)³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고분들의 연대나 통구(通溝)출토 수막새의 연대³⁵⁾에 비추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신라에서 제작되어 황룡사지에 사용되었던 수막새로 판단된다.

31) 김원용, 「고구려 고분벽화의 기원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제21집, 진단학회, 1960, P. 77

32) 김화영, 앞의 논문, 1976, P.25, 圖16

33) 최병현, 「고신라 적석목곽분의 변천과 년」, [한국고고학보] 10·11, 한국고고학 연구회, 1981, P.181. 삼도3.

34) 김화영, 앞의 논문 1976, P.95, 圖15

35) 김화영, 앞의 논문, P.12.에서 필자는 이형식의 연화문이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에 잠시 유행했던 형식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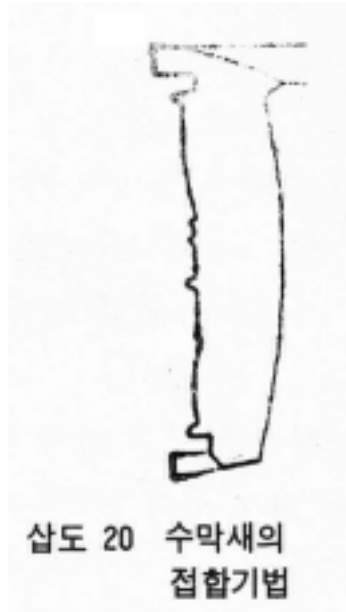
삽도 18 「舞踊塚」 천정
연꽃그림

삽도 18 무용총(舞踊塚) 천정 연꽃그림



삽도 19 「皇南大塚」출토
漆器그림

삽도 19 「황남대총(皇南大塚)」 출토 칠기(漆器)그림



폐와무지에서는 圖1의 단엽연화문 A₁ 형식이 1점만 출토되었으나 황룡사지 전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식의 수막새가 모두 5종류가 출토되었는데, 연잎에 연봉우리 모양의 음각선만 없을 뿐 모두 유사한 모습의 연잎이 장식되고 있다. 이 A형식의 단엽연화문 수막새들은 전체적인 모습은 유사하나 연잎의 수에 있어 A₁ 형식, A₂ 형식, A₃ 형식, A₄ 형식은 모두 8엽의 연잎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A₅, A₆ 형식은 7엽형식이며, A₄ 형식과 A₆형식은 사이잎이 생략되어 차이를 보인다. 이 중 A₂ 형식(圖2)의 수막새는 중건가람의 금당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는 동금당지의 창건건물 기단 내부에서 출토된 것으로 이 건물지의 건립연대(建立年代)³⁶⁾로 미루어 6세기 후반 이전에는 제작되어 황룡사지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단엽연화문 A형식의 수막새는 황룡사의 창건가람(創建伽藍)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강당지 북동편의 1호 폐와무지에서만 단 1점이 출토되었을 뿐 다른 폐와무지에서는 전혀 이형식의 수막새가 출토되지 않았으며, 황룡사지 전체에서 출토된 이 A형식의 수막새가 21점에 불과한 것을 보아도 황룡사지에서 초기에 제작되어 사용되다가 일찍 폐기된 기와들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수막새들이 고구려 유적지인 평양(平壤)일대³⁷⁾와 신라지역에서는 주로 초기 유적지인 월성(月城)(圖82)³⁸⁾과 그 주변, 황룡사지 등에서 소량씩 출토되고 있을 뿐, 다른 신라시대 유적지나 백제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수막새를 찾을 수 없으며, 고구려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신라유적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수막새 중 초기 양식에 속할 가능성을 다분히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A형식의 단엽연화문 수막새는 6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판단되며 특히 A₁ 형식의 경우는 다소 앞선 시기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속하는 수막새로는 단엽연화문 B형식(圖7, 8, 9)을 들 수 있다. 이 형식의 수막새는 연잎의 모습이 A형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나 연잎의 끝에 반전이 없고 양 옆에서 차츰 높아져 연잎 중앙에 능선(稜線)을 이루고 있다. 연잎이 비교적 길며 좁고 자방은 작은 평면형이며 5내지 9개의 연자가 배열되었다. 이런 형식의 수막새는 신라시대 초기

36) 조유전, 앞의 논문 1987, P127~132

37) 김성구, 앞의 논문, 1981, P.13, 삽도1

38)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앞의 논문, 1985, P70, 삽도38

유적지에서 여러개가 확인되고 있는데³⁹⁾ 특히 월성(月城)주변에서 이 형식의 수막새들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圖83).

이렇게 연잎 중앙이 높아져 능선을 이루는 형식은 고구려의 수막새에서는 찾아 볼 수 있으나 백제 유적지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형식의 수막새도 고구려의 영향아래 신라에서 제작된 수막새의 형식으로 판단되는데 전체적인 연잎의 모습에서 백제영향이 약간씩 엿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단엽연화문 B형식의 수막새는 앞의 A형식에 비해 다소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추정되며 폐와무지에서는 B₂ 형식을 제외한 나머지 형식들이 한 두점씩 출토되었다.

<암막새>

이 시기의 암막새는 발견된 예가 없으나 앞서 설명한 I期の 민무늬형식 암막새가 이미 I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형태이든 암막새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황룡사지에서도 전혀 출토예가 없어 앞으로의 자료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암·수키와>

이 시기의 암·수키와는 암막새의 사용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수막새 자체도 출토량이 많지 않고, 또 막새에 접합된 수키와가 완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한점도 발견되지 않아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막새에 일부 남아 있는 수키와를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수키와는 등에 무늬가 없는 민무늬기와였으며 안쪽의 포흔은 비교적 굵고 거친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태도가 곱고 회백색 계통의 색조를 띠는 것이 대부분이나 회흑색(灰黑色)에 태도가 비교적 거친 것도 발견되고 있으며 두께는 모두 1cm정도로 얇은 편이다. 그리고 수키와와 막새와의 접합수법은 수막새의 주연부 뒤쪽을 접합부분 만큼 경사지게 깎아내고 수키와의 접합부분도 같은 경사로 깎아 직각이 되도록 접합시켰다(삽도 20).

암키와의 경우는 이 시기의 암막새가 확인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황룡사지에서 앞의 I기(期)에서 보았던 얇은 민무늬형식의 암키와 조각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앞의 시기에 사용되었던 기와들이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래와>

이 시기에는 특수용도의 장식기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화문 사래와 C형식이 이 시기에 제작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완전한 형태의 것이 없고 모두 파편으로 소량이 출토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뒤에 설명할 연화문사래와 A, B형식과 같은 형태의 사래와로 보인다. 그런데 이 형식의 사래와는 장식된 연잎의 모습이 단엽연화문 A형식의 수막새에 장식된 연잎과 흡사하고 폐와무지에서는 이형식의 사래와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크기에 있어서도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A, B형식에 비해 훨씬 작은 것으로 복엽의 연화문이 장식된 A, B형식의 사래와보다는 앞서는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래와도 창건가람의 건물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황룡사에서는 초기부터 이러한 특수용도의 장식기와가 제작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존속기간은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의 기와들은 신라에 있어서 초기에 나타나는 기와양식이며 황룡사지에 있어서는 창건가람에 사용되었던 기와들로 황룡사의 창건 당시, 즉 6세기 중엽부터 중건가람(重建伽藍)건립이 시작되는 6세기 후반에 걸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형식의 기와들이 신라초기 유적지인 월성지(月城址)와 그 주변에서 출토예가

39) 김화영, 앞의 논문, 1976, P36

보이고 있어 제작시기는 좀더 앞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시기의 기와를 통해볼 때 이 시기에 있어서의 기와양식에는 고구려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신라는 반도(半島)의 동남우(東南隅)에 위치하여 대륙의 발달된 문화의 전수가 삼국(三國) 중 가장 늦을 뿐 아니라 중국 대륙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불가능하여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⁴⁰⁾. 그러나 황룡사가 창건되는 6세기 중엽의 삼국간(三國間) 상황은 기록상 120년간이나 계속되어 왔던 나·제동맹(羅·濟同盟)이 깨지고 3국간의 잦은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고구려의 영향이 신라에 미치게 되는 것은 진흥왕(眞興王)의 한강유역 점령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불교(佛敎)가 고구려를 통해 전래되기 시작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역시 고구려의 영향이 신라의 초기 불교건축에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3. 제(第)Ⅲ기(期)

<수막새>

이 시기의 수막새로는 먼저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단엽연화문 C형식, D형식과 복엽연화문 A형식의 수막새를 들 수 있다.

이 중 단엽연화문 C형식(圖11, 12)의 수막새는 이 시기의 수막새 가운데 가장 빠른 형식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형식의 수막새에 비해 연잎의 폭이 아주 좁고 길이가 짧으며 대체적으로 볼륨이 없이 연잎 양옆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차츰 높게 만들어 연잎 중앙에 능선이 날카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수막새 무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연잎 끝의 높고 날카로운 반전, 높게 돌출되면서 전시기(前時期)의 수막새에 비해 눈에 띄게 커진 자방의 모습 등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Ⅱ기의 수막새 무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백제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잎 끝부분에 나타나는 반전이 백제의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수막새들과는 달리 매우 날카롭고 높게 표현되고 있으며 연잎 중앙의 높은 능선(稜線), 좁고 높은 민무늬 주연과 막새 아래턱의 경사처리 등 고구려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따라서 이 C형식의 수막새는 백제의 영향이 다소 가미되고는 있으나 고구려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신라 초기형식의 수막새로 판단된다. 이 형식의 수막새들은 황룡사지 폐와무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강당지 동북편의 1호 폐와무지와 2호 폐와무지에서만 소량이 출토되었을 뿐이며 전체 출토수량도 10여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 C형식의 수막새와 같은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연화문 수막새들(圖84, 85)이 월성(月城)주변에 노출되고 있는 해자(垓字)안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대부분 해자(垓字)바닥의 깊은 빨흙층에서 출토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빠른 형식의 수막새로 생각된다. 이 월성(月城)출토 수막새는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C형식의 수막새에 비해 연잎 가운데의 능선이 높고 연잎의 폭이 아주 좁아 세장(細長)한 모습이며 자방의 크기가 훨씬 작고 연자의 배열은 5개(圖84), 7개(圖85)로 되어 있어 C형식의 수막새와 같은 배열을 보이나 圖85의 수막새는 6엽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월성(月城)출토 수막새는 같은 층위에서 Ⅱ기형식에 속하는 수막새들과 함께 출토되고 있고, 연잎의 형태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충주(忠州) 탑평리(塔坪里)에서 발견된 고구려계(高句麗系) 신라시대 수막새와⁴¹⁾ 많

40) 김화영, 앞의 논문, 1976, P164

41) 김화영, 앞의 논문, 1976, pp.35-36. 圖81, 82, 83.

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등 고구려의 영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圖 11, 12의 단엽연화문 C형식보다 앞서는 시기의 것으로 보여져 그 출현시기를 Ⅱ기에 해당되는 6세기 후반경에 두어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따라서 황룡사지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이 C형식의 수막새는 Ⅱ기에 그 선행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Ⅲ기에 들어와 완성되는 수막새 형식으로 월성(月城)출토 수막새들 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만들어져 황룡사지 중건가람(重建伽藍)의 초기 건물지에 사용되었던 수막새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속하는 단엽연화문 D형식의 수막새(圖13, 14, 15, 16)는 전체적으로 앞서는 시기의 수막새에 비해 막새의 크기가 커졌으며 장식무늬에 있어서는 연잎의 볼륨과 연잎 끝에 나타나는 반전의 강약, 자방의 형태와 연자의 배열 등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장식무늬의 기본적인 구성과 연잎의 형태, 제작기법 등에서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 D형식의 수막새들은 앞의 C형식에 비해 연잎이 크고, 연잎 중앙에 볼륨이 강조되어 매우 후육(厚肉)한 모습을 보이며 비교적 좁아진 자방을 높게 돌출시켜 자방의 외연(外緣)에 윤곽선(輪廓線)을 장식하는 등 전체적으로 백제지역의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고식(古式)의 수막새 무늬와 유사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C형식과 마찬가지로 연잎 끝에 나타나는 날카로운 반전, 연잎 가운데의 뚜렷한 능선의 표현 등 고구려적인 요소가 밑바탕에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圖14와 圖15의 수막새는 황룡사지의 각 폐와무지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고 황룡사지 전체적으로도 280여점에 이르는 많은 양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강당지 동북편에서 발견된 2호 폐와무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 이 2호 폐와무지 바로 북편에서는 삼도 6의 대형치미가 출토된 바 있고 그 출토위치나 층위로 보아 이 치미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어 함께 사용되었던 수막새로 추정된다. 그리고 圖15의 수막새와 똑같은 모습의 수막새(圖86)는 경주(慶州) 동천동(東川洞)의 신라시대 고분⁴²⁾에서 출토예가 보일 뿐 다른 신라시대 유적지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황룡사의 대표적인 고식(古式) 수막새 형식으로 보이며 앞의 C형식 수막새보다는 늦은 형식으로 생각되나 대체로 비슷한 시기인 6세기 말경에는 제작되어 중건가람의 초기 건물지에 함께 사용되었던 수막새로 판단된다.

<암막새>

이 시기까지도 암막새의 사용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황룡사지 발굴을 통해서도 이 시기의 암막새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둘 수 밖에 없다.

<암·수키와>

이 시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암·수키와 역시 전체적인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나 수키와의 경우 이 시기의 수막새에 붙어 남아 있는 수키와를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짐작할 수가 있다. 이 시기의 수키와도 역시 민무늬기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판(叩板)으로 두드린 후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게 세로줄무늬가 남아 있

42) 조선총독부, [조선고적도보] 3책, 1916, 도판 1220, 1221

이 고분은 瓦塚으로 불려지고 있는 신라시대, 고분으로 이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되어 있는 圖86의 수막새와 암·수키와 塼 등은 확실하게 밝혀진 자료가 없어 그 출토위치를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이 고분 안에서 함께 발견된 유물로는 石枕과 銅甕이 있는데 대체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걸치는 삼국시대 신라고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는 것이 많았으며 기와등에 굵은 세로줄무늬나 빗줄무늬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도 다수 발견되었다. 기와의 두께는 대체적으로 1.5cm이상의 두께를 보이고 있어 앞시기의 수키와에 비해 두꺼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작수법은 역시 원통형으로 만들어 2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절단면에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보아 대부분 기와의 등쪽에서 와도(瓦刀)를 대고 기와 두께의 거의 전체를 절단하거나 반이상 깊게 칼질하여 분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분할 후 기와의 절단면을 2~3회 정도 와도(瓦刀)를 대어 정면(整面)한 것도 다수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수키와와 수막새와의 접합수법은 II기의 수막새에서 살펴 보았듯이 막새의 주연부 뒤쪽을 경사지게 깎아내고 수키와의 끝을 같은 경사로 깎아 접합시키는 방법도 나타나고 있지만 주연부를 접합부분만큼 일부 또는 전부를 깎아내고 수키와의 끝을 막새 앞면보다 튀어 나오도록 접합하고 접합면을 정면(整面)한 것이 발견되고 있어 이 시기에 들어서 前時期의 접합기법과 함께 새로운 방법의 접합기법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도 21).

암키와의 경우는 이 시기에 사용된 암막새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서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앞서 살펴본 수키와와 마찬가지로 1.5cm내외 두께의 비교적 두꺼운 기와들로 기와등에 물손질로 인해 세로 줄무늬가 띄엄 띄엄 희미하게 남아 있는 것들이 이 시기에 사용되었던 암키와로 추정될 뿐이며, 짧은 세로줄무늬를 여러번에 걸쳐 두드려 세로줄무늬와 빗줄무늬가 서로 겹쳐진 것들도 그 태토나 기와의 두께로 보아 이 시기의 암키와로 생각된다. 이들 기와의 절단면에 남아 있는 분할흔적으로 보아 분할 방법은 역시 기와의 안쪽에서 등쪽으로 와도(瓦刀)를 대고 기와 두께의 반정도 또는 그 이상을 깊게 칼질하여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할 후 분할면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도 다수 발견되었다.

<특수장식기와>

이 시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특수용도의 장식기와로는 앞에서 살펴 본 강당지 동북편 출토 대형치미와 폐와무지 출토 연화문 사래기와 A형식(圖69)과 B형식(圖70)을 들 수 있다.

먼저 강당지 동북편에서 1개분이 일괄로 출토된 치미는 출토된 위치와 출토상태로 보아 황룡사의 강당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크기가 높이 182cm, 폭 150cm에 이르는 대형장식기와로 건물의 규모가 작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창건가람(創建伽藍)의 강당지보다는 正面 10間, 측면(側面) 4間 규모로 크게 중성(重成)되는 중건가람(重建伽藍)의 창건강당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목탑지 서편의 3호 폐와무지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연화문사래와 A형식과 B형식도 이 시기 末期에는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A형식의 사래기와는 전체 높이가 45.7cm, 최대폭이 40cm에 이르는 대형 장식기와로 앞의 II기에서 살펴 본 C형식의 사래기와들에 비해 크기가 훨씬 크고, 기와면에 장식된 연화문도 복엽의 연잎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와무지에서는 이 A형식, B형식의 사래기와만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C형식보다는 늦은 시기에 제작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A형식, B형식과 같은 모습의 사래기와 조각들이 경주시 근교의 다경와요지(多慶瓦窯址)⁴³⁾에서 다수가 발견되고 있는데⁴⁴⁾

43) 이 瓦窯址는 경주시 부근인 月城郡 見谷面 下邱 3里 120번지 일대의 논가운데에 기와더미들만이 일부 남아 있을 뿐 窯의 흔적은 찾을 수 없으나 현재 논가운데에 남아 있는 폐와더미에서는 각종의 신라시대 기와들과 塼片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필자도 여러번에 걸쳐 이곳 일대를 답사하여 기와를 조사한 바 있다.

김성구, 「다경와요지 출토 신라와전소고」, [미술자료], 국립중앙박물관, 1983.

44) 김성구, 앞의 논문 1983, p.8, 圖5.

이 와요지(瓦窯址)의 존속기간이 6세기 후반에서 통일초기인 7세기 후반까지의 시기로 추정되고 있어⁴⁵⁾ 이 사례기와의 제작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Ⅲ기에 속하는 기와들은 황룡사의 중건가람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6세기 후반부터 늦어도 7세기초 이전에는 제작되어 중건가람의 초기 건물지에 사용되었던 기와들로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장식무늬에 있어서 백제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나 그 저류에는 계속해서 고구려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수막새와 장식기와에 있어서는 다른 신라시대 유적지에서는 출토예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 백제와 고구려의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나 어느정도 신라화된 무늬양식을 보이며 주로 황룡사지에서 사용되었던 황룡사의 대표적인 고식 기와양식으로 볼 수 있다.

4. 제(第)Ⅳ기(期)

<수막새>

이 시기의 수막새들로는 단엽연화문 E형식, F형식, G형식, H형식과 복엽연화문 A형식을 들 수 있으며 귀면문 수막새가 이 시기에 속하는 수막새로 볼 수 있다.

먼저 단엽연화문 E형식(圖17, 18, 19)은 Ⅲ기의 수막새에서 살펴보았던 단엽연화문 D형식 수막새에 장식된 연잎과 유사한 모습이나 연잎의 볼륨이 윗쪽으로 가면서 차차 높아져 연잎 끝부분이 매우 두껍게 표현되고 연잎 끝에 약한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자방의 크기가 D형식의 수막새에 비해 작아지고 주연의 높이가 조금 낮아졌으나 연잎 중앙의 뚜렷한 능선, 돌출된 자방과 연자의 배열 등 전체적으로 D형식 수막새와 유사한 무늬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 중 E₁ 형식(圖17)과 E₂ 형식(圖18)의 수막새는 황룡사지 전체적으로 모두 20~30여점에 불과한 소량이 출토되었으며 전 시기의 단엽연화문 C형식 수막새와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의 수막새는 통일초기의 사찰인 감은사지(感恩寺址)나 망덕사지(望德寺址) 정도만 되어도 전혀 출토되고 있지 않으며⁴⁶⁾ 주로 분황사(芬皇寺)나 황룡사지에서 출토예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삼국기(三國期) 신라시대 수막새임이 확실한데 황룡사지에 있어서 그 출토량이 많지 않고 前時期 수막새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수막새 무늬의 주류를 이루는 다음에 설명할 6엽형식의 수막새보다 앞서 제작되어 분황사(芬皇寺) 등 7세기 전반에 지어지는 사찰의 초기 건물지에 사용되었던 수막새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의 단엽연화문 C형식이나 E₁, E₂ 형식의 수막새에 장식된 연잎과 유사한 모습이나 6엽의 연잎으로 구성된 E₃ 형식(圖19)은 자방의 크기가 훨씬 작아지고 6개의 연자가 배열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앞의 수막새들에 비해 막새 자체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 다음에 설명할 6엽형식의 수막새와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잎의 볼륨 연잎 중앙의 뚜렷한 능선과 연잎 끝의 반전 표현 등 앞의 수막새 전통이 많이 남아 있고 이 형식의 수막새와 같은 형식의 수막새가 분황사(芬皇寺)의 창건(創建)기와로 추정되고 있는 점⁴⁷⁾으로 미루어 앞에 설명한 E₁, E₂ 형식의 수막새와 마찬가지로 끝이어나 나타나는 6엽형식의 수막새보다 앞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뒤에 설명할 6엽형식 수막새의 선행형식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45) _____, 앞의 논문 1983, pp.20~21.

46) 김화영, 앞의 논문 1976, p.38.

47) 김성구, 앞의 논문 1981, p.19.